

【국어정책 연속토론회 자료집】

제5회 토론회

# ‘누리꾼’인가 ‘네티즌’인가

(외국어의 순화를 강화할 것인가)

일 시 : (제5회) 2011년 8월 25일 목요일 15:00~17:00

장 소 : 목동 방송회관 3층 회견장

주 관 : 국어학회, 조선일보

주 최 : 국립국어원

## 제5회 토론회 일정

일시	내용	비고
15:00~15:05 '5	개회	손범규(SBS 아나운서)
15:05~15:25 '20	'누리꾼' 주장 발표	김두루한(경기상고 교사)
15:25~15:45 '20	'네티즌' 주장 발표	김진혜(경희대 교양대학 후마니타스 칼리지)
15:45~15:55 '10	'누리꾼' 주장에 대한 지정토론	변정수(출판 컨설턴트)
15:55~16:00 '5	답변	
16:00~16:10 '10	'네티즌' 주장에 대한 지정토론	정재환(방송 사회자, 한글문화연대 공동대표)
16:10~16:15 '5	답변	
16:15~16:45 '30	패널 자유 토론	
16:45~17:05 '20	객석 질의응답	
17:05~17:10 '5	폐회	

## 국어정책 연속토론회 전체 주제 (시간과 장소는 동일)

- 제1회(6/23) '후진타오'인가 '호금도'인가(중국 인지명의 외래어 표기를 현지 발음에 따라야 하는가)
- 제2회(7/7) '부산'은 Busan인가 Pusan인가(국어의 로마자 표기 이대로 좋은가)
- 제3회(7/21) '북엇국'만 되고 '북어국'은 안 되나(성문화된 한글 맞춤법 규정을 유지해야 하는가)
- 제4회(8/11) 표준어만 되고 방언은 안 되나
- 제5회(8/25) '누리꾼'인가 '네티즌'인가(외국어의 순화를 강화할 것인가)**
- 제6회(9/8) 대학 영어 강의를 의무화해야 하는가

## 사회자, 발표자 및 토론자 소개

### ■ 사회자

손범규 아나운서

SBS 아나운서  
한국아나운서연합회장  
국어학박사

### ■ 발표자

김두루한

경기상고 교사

경북대학교 국어국문학과(학사) 연세대학교 대학원(석사)에서 수학하고 상명대학교 대학원에서 문학박사 학위를 받음.

한양대사대부고, 장충중고등학교, 금천고등학교, 신목고등학교, 광양고등학교 교사 및 상명대학교 국어교육과 강사, 성결대학교 한국학부 강사를 지냄. 현재, 경기상업고등학교 교사이며 경인교육대학원 초등국어교육전공에 출강함.

한말글문화협회 교육분과위원장, 국어정책학회(준), 우리말로학문하기모임 및 외솔회 총무 이사, 사무국장, '우리말 우리얼' 편집장 및 운영위원을 지내고 현재 한글학회 정회원, 외솔회 비상근 이사, 전국국어교사모임 회원, 참교육연구소 중등새로운학교 연구실장임.

<지은 글과 책>

“월여기에서 {은}, {을}이 지닌 구실뜻”(석사논문,1988), “‘국어’의 뜻넓이와 유래”(2004), “즐거 합친말 ‘먹거리’의 만듦새와 쓰임새”(2005), “한국말의 즐기 합치기와 새말 만들기”(박사학위논문,2006), “한말글(국어) 배움책의 갈말 바로 잡기”(2008), “삶가꾸기(도덕) 배움책의 갈말 바로잡기”(2008), “중학교 <생활국어> 배움책 ‘날말’ 단원 만들기”(2008), “딴나라말을 어떻게 받아들일까”(2008), “석보상절로 본 우리말 ‘줄글’ 표현”(2009), “중등말본(문법) 교육이 나아갈 길”(2009), “배움터의 참 말글살이”(2010), “열린시대 교육개혁론”(공, 1996) 등이 있음.

김진혜

경희대 교양대학 후마니타스 칼리지 교수

(주)언어과학 부설 언어공학연구소 전임연구원

<21세기 세종계획 전자사전개발> 공동연구원

국립국어원 국어문화학교 '국어생활의 쟁점' 강의

현재 경희대 교양대학 후마니타스 칼리지 부교수로 글쓰기와 책읽기, 국어학 관련 강의를 하면서 '경희대 실천인문학센터' 운영위원장으로 사회적 약자를 위한 시민인문학 강의를 진행하고 있음.

<주요 저서>

<국어 언어 연구>, <언어이야기>(공저), <한국의 규범성과 다양성 -표준어 넘어서기>(공저), <한국어 어휘의미망 구축을 위한 기초 연구>(공저), <상상과 창조 글쓰기>(공저), <나를 위한 글쓰기>(공저) 등.

### ■ 토론자

변정수

토마토 출판사, 인물과사상사, 삼인 등에서 편집자로 일했고, 2003년 이후 현재까지 출판컨설턴트로서 한겨레교육문화센터·서울복인스티튜트 등에서 출판 편집을 강의하면서 지식 산업의 후속 세대 재생산을 위한 고민에 주력하고 있다. 서울디지털대, 동덕여대, 건국대 등에 출강했고 『편집에 정답은 없다』로 2009년 한국출판평론상을 수상했다. 미디어평론가로서 사회적 소수자의 인권에 친착하는 비평 활동을 펼쳐 왔으며, 비평집 『그들만의 상식』 『만장일치는 무효다』 『상식으로 상식에 도전하기』와 에세이집 『나는 남자의 몸에 갇힌 레즈비언』을 냈다.

정재환

방송 사회자, 한글문화연대 공동대표

산림청

충북대학교

대구대학교

국립어린도서관

국립중앙도서관

EBS 미래특강 : 아름다운 언어환경

KBS 한글날 특강 : 아름다운 언어환경을 꿈꾸다

이하 생각

<참 고>

한글문화연대 누리집 <http://www.urimal.org/>

개인 블로그 한글나라 [http://blog.daum.net/jhistory/?\\_top\\_blogtop=go2myblog](http://blog.daum.net/jhistory/?_top_blogtop=go2myblog)

제잘터 <http://twitter.com/jhariari>

## 목 차

- 일 정
- 사회자, 발표자 및 토론자 소개
- 발표 1: 김 두 루\_한\_경기상고 교사 ..... 1  
    '누리꾼'을 써야 할 까닭
- 발표 2: 김 진 해\_경희대 후마니타스 칼리지 교수 ..... 11  
    '네티즌'도 한국어이다
- 지정토론 1: 변 정 수\_출판 컨설턴트 ..... 25  
    불행한 시대의 정신적 유산을 청산하자
- 지정토론 2: 정 재 환\_방송 사회자, 한글문화연대 공동대표 ..... 31  
    '네티즌'은 한국어인가
- 부 록 1: 국어 순화 관련 참고 자료 ..... 37
- 부 록 2: 조선일보 기사  
    8월 12일자 기사(제4회 토론회 기사) ..... 61  
    8월 22일자 기사(다섯 번째 주제 토론 기사) ..... 62

발 표 1

# ‘누리꾼’을 써야 할 까닭

김 두 루 한  
경기상고 교사

【발표 1】

# ‘누리꾼’을 써야 할 까닭

김 두 루 한  
(경기상고 교사)

## 1. 머리말

일찍이 주시경님은 “말이 오르면 나라도 오르고, 말이 내리면 나라도 내린다”고 했다. 이처럼 한 나라의 운명은 ‘말과 글’에 있음을 우리는 제대로 잘 알고 있는가? 광복 예순 여섯 돌을 맞아 이제라도 ‘말과 글’을 제대로 지켜내지 못한 잘못을 반성해야 하지 않았는가? 하늘에서 비 퍼붓듯 쏟아지는 ‘남의 말’로 된 새말을 그냥 빌려 쓰는 일은 옳지 않다. 이제껏 써 온 대로 ‘빌린말’을 제 것으로 녹이지 못한 채 언제까지 미루기만 할 것인가?

정보 시대의 바탕인 ‘전자말’의 시대, 슬기틀(컴퓨터)을 쓰는 사람과 누리그물(인터넷)을 누비는 사람의 비율이 세계 어느 나라보다 높은 우리나라가 아닌가? 따라서 ‘네티즌’이 아닌 ‘누리꾼’을 써야 할 까닭을 이참에 뚜렷이 밝히고자 이 글을 쓴다.

## 2. ‘누리꾼’에 담긴 ‘새말 이야기’

### 2.1 우리 말글살이, 이대로 좋은가

오늘날 우리가 삶을 누리는 곳곳에서 ‘한국말’의 입말과 글말은 어떻게 썩어지고 있는가? 누구나 삶을 가꾸는 일터를 비롯하여 때마다 소식을 알려주는 말글터(언론), 거래의 ‘샅뽕’(문화)을 배우고 가르치는 배움터(학교)에 이르기까지 곳곳에서 널리 쓰인다.

하지만 1945년 답뽀 해 나라를 도로 찾은 지 예순 여섯 해가 지난 2011년 또다시 ‘빚찾음(광복)’을 되찾기는 오늘에 이르러 우리가 얼마나 ‘한말글’을 제대로 가꾸며 부러쓰고 있는지를 돌아보면 답답하고 안타까워 눈물이 절로 흐른다.

입말살이부터 보자. 방송은 프로그램 이름이나 광고, 운동경기에 이르기까지 드러내 놓고

이 정도의 판나라말을 모르겠느냐고 하면서 대놓고 ‘서양답기’를 내세운다.

- (1) “시청자 여러분! 투데이뉴스에서는 이 문제를 스페셜로 리포트해 드리고자 합니다”
- (2) ‘훨씬 적다고 간주가 됩니다’
- (3) ‘참 큰 키를 가지셨군요’

(1)은 거래말을 써야 한다는 깨달음이 전혀 바탕에 들어 있지 않고 ‘뽕뽕’에 들뜬 모습이 다. (2)에서는 잘못된 글말을 쓴 것이 입말로 나타난 보기이다. (3)은 한 술 더 떠 사회자가 키가 큰 출연자를 보고 말한 것이다. 서양말과 우리말의 말본이 서로 다른 것인데도 우리말 글을 바로 쓰려는 생각조차 없는 듯하다.

글말살이는 어떠한가? 빼앗긴 나라를 도로찾은 뒤 ‘민주공화국’의 법률 제6호를 정하고도 그것을 만든 국회나 이를 지켜야 할 정부가 오래도록 지키지 않았다. ‘무슨 法, 第 몇 條, 몇 項에 依하여 嚴重處罰한다’는 살벌한 문구나 은행에서 맡겨 둔 제 돈을 찾을 때도 ‘이만 원’을 ‘貳萬 원’이라고 적지 않으면 안 되었다. 신문은 한 술 더 떠 ‘날말의 7~8할이 한자말이다. 뜻글자인 한자를 섞어 써야 이해하기 쉽다. 한자는 조어력이 뛰어나고 한자를 알고 나면 낱말 익히기가 쉽다. 고전을 읽고 신문 등을 마음대로 읽게 하려면 초등학교 교과서는 한자를 섞어 써야 한다’는 말을 마치 ‘한자’가 ‘만병통치의 영약’인 듯이 떠벌여 왔다.

우리의 ‘말광(사전)’은 어떠한가? 우리나라는 다행히도 나라잃은 때인 1938년 문세영이 ‘조선말사전’을 펴냈다. 이 사전에 10만 낱말을 담은 뒤로 1957년 ‘큰사전(한글학회)’에서 16만 낱말을 담았고, 1992년 ‘우리말 큰사전(한글학회)’에서는 45만 낱말을 담았다.

그런데, ‘말광’에는 크게 보아 우리 겨레가 써오던 토박이말과 판 겨레가 쓰는 들은말이 실린다. 한글 학회에서 처음 펴낸 1957년 《큰사전》의 낱말 통계에 의하면 표준말로 잡은 140,464 낱말 가운데 토박이말이 56,115 낱말이며 빌린말이 84,349 낱말이다. 빌린말 가운데 81,362 낱말이 한자말이고 그 밖의 2,987 낱말이 일본말, 서양말들에서 빌린 셈이다. 왜 이렇게 ‘빌린말’이 많을까?

“총독부 <조선어사전>은 예컨대 ‘편지’라는 우리말을 “片紙(편지): 手紙”라고 조작했는데 (手紙는 ‘편지’란 뜻의 일본말), 우리말 ‘편지’가 片紙에서 왔다고 꾸며 ‘종잇조각’ 같은 것이라고 얼버무린 것입니다.”

1920년 조선총독부에서 낸 <조선어사전>(조-일 사전)에 실린 낱말을 분석해보니 한마디로 우리말을 없애고 내리썩였었고, 그뒤로 대부분 그 틀을 벗어나지 못한 까닭이었다.

## 2.2 새말을 보는 눈

우리 삶은 '누린 것'과 더불어 나날이 새롭게 피어난다. 요즘 웬만한 분들은 일흔 살(1941년)은 거뜰히 넘겨 사는데, 이 분들의 삶을 놓고 짚어보자. 이 분들은 '농경사회, 산업사회, 정보사회'를 거쳐왔다. 이렇게 사회가 바뀌면서 이 분들의 말글살이는 어떻게 바뀌었을까? 그야말로 '새말'을 받아들이기에도 숨가쁘게 살아온 삶이라 할 수 있다. 아무래도 없던 문물제도가 바깥으로부터 쏟아져 들어왔으니까, 안에서든 새로운 뜻을 담거나 새로운 일과 문(물건)을 드러낼 '새말'을 끊임없이 만들어 써야 했던 것이다.

그런데, 행정자치부가 몇 해 사이 '동사무소'를 '동주민센터'로 고친 일이 있다. 행자부는 나라기관인지라 '센터'가 '나라말(국어)'인지, 아닌지를 판단해야 했다. 그 잣대가 무엇인가를 두고 말씨름이 크게 일어났다. 곧, 행자부는 '어떤 분야의 전문적, 종합적 기능이나 설비가 집중되어 있는 곳'이란 뜻으로 '말광(사전)'에 올려 있다고 했다. 하지만 '동사무소'를 '동주민센터'나 '주민어울터'로 쓰지 않고, 굳이 '주민센터'로 쓰는 뜻은 무엇인가? '뜰' 위에 '정원' 있고 '정원' 위에 '가든'처럼 꼭 써야 할까? 그렇다면 '아버지'인 '파더'도 말광에 올리지만 하면 한말(한국어)인가?

이처럼 바깥에서 들어온 '새말'인 '들온말'을 '나라말처럼 쓰인 말'로 봤었다. 하지만 '빈자리'를 채우려고 판나라말(외국어)을 빌려와서 쓰는 것과 굳이 들온말로 둔갑시켜 나라말에 집어넣는 일은 뚜렷이 다르다. 그동안 '들온말'로 썼던 판나라말은 이제라도 우리말로 다듬을 때까지 빌려 쓴다는 뜻의 '빌린말'로 다루어야 한다. '들온말'이 버젓이 '나라말'처럼 쓰는 일을 바로잡고 '뽕뽕'의 뜻으로 쓰는 잘못된 버릇도 고쳐 나갈 수 있기 때문이다.

서양말에서도 새로운 문물에 '새로운 이름'을 붙이기만 하지 않는다. 잉글리시의 'car'는 말수레를 뜻하는 잉글리시의 'cartridge'에서 왔고, 잉글리시의 'wagon'과 도이치말 'Wagen'도 수레를 뜻하는 말이었다. 한마디로 '수레'를 죽 이어서 내리쓰고 있는 것이다. 이에 견주어 한국말로는 수레-자동차(차)-카(car)의 낱말이 쓰이고 있다. '문(짝), 바퀴'도 '도어, 타이어'와 같이 쓰인다. '자동차'는 사람이나 짐을 실어나른다는 뜻에서 원동기만 달았을 뿐, '수레'나 '달구지'와 다를 바 없고 '도어, 타이어'도 굳이 써야만 하는 것은 아니지 않은가?

'새말'은 우리가 여러 분야에서 바빠 겪고 움직인 삶의 무늬이다. 온갖 문물 제도를 새롭게 만들고 바깥으로부터 받아들이면서 '새말'은 생겨나기 마련이다. 새로운 뜻이나 일과 문(사물)이 '낱말' 체계에 '빈자리'로 생겼으니 당장 '새말'로 채워야 하는데, 퍼붓는 비처럼 쏟아지고 넘쳐나는 '새말'을 어떻게 다루며 '말광(사전)'에 실어야 할까?

<표준국어대사전>개정판(2008)에 실린 새말 '누리꾼'이 좋은 보기이다. '가상(사이버) 공간에서 활동하는 사람'이란 뜻으로 실렸고, 비슷한 말로 '네티즌'을 들어 놓았다. '누리꾼'은 '모두가 함께하는 우리말 다듬기'(국립국어원)에서 '누리꾼'으로 다듬어 자리를 잡았다. "많은 누

리꾼들의 참여로 '웹빙'은 '참살이'로, '올인'은 '다결기'로, '파이팅'은 '아자'로 바뀌었다"와 같은 기사의 쓰임에서 알 수 있다.

## 2.3 새말은 누가 만드는가

'새말'은 스스로 만들기와 말다듬기, 판나라말 빌려쓰기의 세 가지 모습으로 갈라볼 수 있다.

<표 1> 새말 만들기

(1) 스스로	만들기	대수롭다, 개숫물, 가계, 전나무, 고치다, 족집게, 막가파, 구두담이, 병따개, 사자-팔자, 몸짱, 책날개, 문열개
(2) 스스로	말다듬기	통조림, 가락국수, 견넬목, 모눈종이, 당소리, 맞선풀, 누리꾼, 셴틀, 글쇠, 갑박이, 두리, 내려받다, 동아리,
(3) 판나라말	빌려쓰기	애널리스트, 와이파이폰, 폴더, 트랙백, 롤플레이게임, 세계화와 공공부문의 리프레이밍, 노사관계 이젠 '켈로십'으로, 멘토링 협약식을 가졌습니다, 아젠다

<표 1>의 (1)에서 보듯이 말글 대중이 스스로 새말을 만들려는 욕구와 시도는 대단히 왕성하고 활발하다. 누구나 새로운 뜻을 담아 이름짓고자 하는 마음에 바탕을 두고 본뜨거나 짐작함(유추)을 거쳐 새말을 만든다. 다만 때로 그저 잠깐 쓰고 버리는 일회용의 유행말이 되거나, 통신말씨처럼 좁은 범위에서만 쓰이다가 용도가 소멸되면, 자연스레 태어났듯이 자연스럽게 사라진다. 또 '예의 조항'을 만들어낸다. '뜰'을 머릿속에 두지 않고 그때그때 필요에 따라 만들기 때문이다. 이를 두고 우리는 더 새로운 규칙이 나온 것이라 보고 내세워야 할 것이다.

(2)는 개인이나 집단(단체), 정책 당국을 중심으로 한 말다듬기의 모습이다. 한자말의 범람을 막기 위한 한말 깨끗이 하기 운동의 하나로, 한글을 울쓰기함으로써 한자말을 한글로 적었을 때 말뜻 알기가 곤란함을 미리 막으려 한자말을 토박이말로 된 말로 바꾸거나, 광복 뒤로 일본말 찌꺼기를 몰아내기 위해 그들을 토박이말로 바꾸는 과정에서 이루어졌다. 따라서 말다듬기의 재료는 토박이말을 주로 하고 아주 익어버린 한자말도 쓰였다.

(3)은 언론, 학자와 같이 바깥 문화를 자주 맞닥뜨리는 이들을 중심으로 판나라말을 빌려쓴 것이다. 토박이말과 달리 빌린말은 해당 나라말에 대한 이해가 없는 한 말뼉리로 말뼉을 미루어 짐작하기 어렵다. 대부분 본디말에서의 낱말책임이나 낱말엮기들과 상관없이 훑날말로 알게 된다. '꼭 써야 함'보다 '뽕뽕'의 이유로 신문과 방송, 숭씨말(전문어)에서 '의사소통의 효율성'을 내세워 쓰고 있다는 것은 '말글의 공공성'을 지나친 것이라 매우 안타까운 모습이다.

그러면 누리꾼은 누가 만들었을까? 전산용어 '네티즌'을 순화하여 이르는 말인데, 1990년대 중반 전자통신의 한글사랑 동아리가 '홈페이지, 컴퓨터, 인터넷'을 '누리집, 셴틀/슬기틀,

누리그물/누리망'으로 바꿔 쓰기를 펼쳤고, 이대로님이 '네티즌'보다 '누리꾼'으로 바꿔 쓰면서 많은 이들이 즐겨 쓰다 '모두가 함께하는 우리말 다듬기' (국립국어원)에서 '누리꾼'으로 다듬어 자리를 잡았다.

#### 2.4 새말은 어떻게 만드는가

새말은 말글을 부러쓰는 이들의 의식이 달라지면서 쓰지 않던 낱말이나 새로운 표현을 하고 싶을 때 있던 낱말의 '문제점'을 느끼게 되면서 만든다고 할 수 있다. '새말'은 그 문제를 풀어보려는 노력과 시도인 것이다. 다만 얼마나 보람(효용)이 있고, 그 문제의 핵심을 알맞게 말글에 반영하느냐가 새말 만들기의 중요한 길목이 된다.

- (4) ① 성격이나 쓰임새가 있던 말로 적합하게 느껴지지 않을 때: 수레, 자동차
- ② 해당 사물의 성질을 달리 받아들일 때: 치마, 스커트/나막신, 고무신, 구두, 슈즈
- ③ 말글 대중의 가치관이나 이념이 바뀔 때: 미즈, 그(대이름씨), 새내기, 테크노피아

(4)는 다시 그 짜임으로 보아서는 크게 말글 대중이 자연스레 만들기와 말본 규칙으로 만들기의 둘로 만들어지고 정책 당국 중심의 말다듬기는 대체로 말본 규칙에 따른다.

<표 2> 짜임으로 본 새말 만들기와 말다듬기

만들기	(1) 자연스레	대수롭다, 개수물, 가게, -사태, -유, 쪽지울, 달걀, 언데, 관측과, 와이엠씨에이, 나토, 기 교수, 불백, 비냉
	(2) 말본규칙	늦잠, 늦깎이, 헛수고, 선잠, 대기업, *대통령, 바람막이, 구두땀이, ~꾼, 물불, 앞뒤, 들이치다, 잡아먹다, 뽀족구두, 벼락공부, 지옥철, 슬하, 각광, 좌익, 섭씨
말다듬기		그림말, 누비웃, 빗가림, 불입쪽지, 늘찬배달, 두루누리, 마루지, 다걸기, 감동되살이, 어우름

<표 2>의 (1)은 이미 있는 말을 교묘하게 변용하거나 분화시키는 경우, 말의 형태는 바뀌지 않으면서 그 뜻을 좁히거나 넓혀서 쓰는 경우, 이제까지 말만듬법(조어법)으로 어색한 경우, 준말 이용법의 보기이다. 특히, '머릿글자 따기'나, '머리음절 따기'와 같은 보기들은 나름대로 새말 짓기의 규칙으로 자리잡을 수 있다면 우리말이 발전할 수 있는 발판을 다지게 될 것이다.

<표 2>의 (2)는 말본 의식이 반영된 것들의 보기이다. 이미 자립으로 쓰이는 낱말들의 앞머리에 붙어 일정한 뜻을 더해 주는 앞가지(접두사)라는 요소를 이용하거나 뒤에 붙어서 뜻을 더해 주는 뒷가지라는 요소를 이용한 보기이다. 그리고 자립하는 두 낱말을 합쳐서 더 큰 하나의 낱말을 만드는 방법, 소리시능, 짓시능을 이용하기, 비유의 방법, 뜻옮김, 소리옮김으로 새말을 만든 보기이다.

<표 2>의 (3)은 2004년부터 국립국어원이 누리그물에서 참여형 국어순화 방식으로 운영하는 '우리말 다듬기'에서 다룬 것들이다. '마련'을 해 놓고 '파냄'이나 '다짐'으로 나아가지 못한 한계를 보였다. 글쓴이는 국립국어원이 나라말기본법에 따라 공공기관에서 쏟아내는 '새말'의 말글살이부터 바로잡아야 한다고 본다. 아울러 토박이말로 솜씨말(전문어)을 펴내고, 배움터(학교)와 말글터(언론)에서 애쓰는 이들을 뒷받침해야 할 것이다.

#### 2.5 누리꾼을 써야 할 까닭

그러면 우리는 '누리꾼'을 왜 써야 할까?

첫째, '써야 하는 말'이기 때문이다. 우리가 '쓰는 말'이니 그게 모두 우리말이 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쓰고 있는 말은 언제나 '써야 하는 말'에 이르지 못한다. 사람은 말로써 삶을 이루어간다. '써야 하는 말'을 올바르게 찾아 써야 삶을 값지고 보람차게 살 수 있음을 서양 사람들이 보여준다.

둘째, '졌던 말'로 만들었기 때문이다. 세계를 뜻하는 온누리의 '누리'에 어떤 '일'을 열심히 하는 사람이거나 그 일에 푹 빠진 사람을 뜻하는 '-꾼'이 붙었는데, 이들은 일찍이 써 온 토박이말이다.

셋째, '또렷한 말'이기 때문이다. '새누리에서 문화를 만들어내고 가꾸는 사람들'이란 말뜻이 담겨 있다. '장르를 구분해 보자'와 같이 흐릿하고 어둠어둠하지 않고, '갈래를 지어보자'처럼 또렷이 뜻이 드러난다.

넷째, '쉬운 말'이기 때문이다. '쉬운 말 쓰기'는 모든 나라임자들에게 순식간에 전달되고 누구나 모두가 '알찬 보람'을 맛보는 사회를 이룩할 것이다. '어려운 말'을 써야 점잖고, 유식하고, 부러운 눈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직도 여전하다. 한자를 버리지 못하고, 로마자를 자꾸 쓰는 이들, 따지고 보면 모두 '쉬운 것'을 업신여기는 풍토 탓이다. 그런 것을 즐겁게 누리려 하는 '마음' 탓이다.

다섯째, '아름다운 말'이기 때문이다. '네티즌', '괘위 게임'과 '랜드스케이프 시리즈'와 같이 거친 소리로 들리는 말이 아니라 '누리꾼'은 부드럽고 고운 느낌을 자아낸다.

여섯째, '솜씨말(전문용어)'로 쓰였다가 '나날말'이 된 말이기 때문이다. 좁게 쓰이던 말이 널리 쓰이려면 되도록 토박이말로 새말을 만들어야 한다. '누리꾼'은 그런 과정을 거친 본보기라 할 것이다.

일곱째, 토박이말의 힘을 먼저 깨달은 이가 만들었기 때문이다. 개인이나 기관과 같은 단체가 '깨달음'을 바탕으로 새말을 만들게 된다. '육교, 소테나시'를 '구름다리, 민소매'로 다듬어 쓰는 일은 말과 글도 사랑하며 가꾸어야 한다는 뜻이 담겨 있다.

여덟째, '빌린말'이 아니고 '토박이말'에 뿌리를 두고 다듬었기 때문이다. '21세기 지식정보

강국인 '대한민국'에서 신라 때의 당나라 글말, 20세기 나라잃은 때 일본말인 한자말을 빌려 쓴 것처럼 굳이 '네티즌'과 같은 판나라말(외국말)을 빌려 쓸 까닭이 없다.

아홉째, '겨레말'을 내세운 새로운 겨레말이기 때문이다. 사람은 '사람임'으로 태어나기보다 '사람됨'을 갈다가 나가야 한다는 말이 있듯이 한 겨레의 말과 글도 애써 만들고 사랑하며 가꾸어야 한다. 21세기에도 '겨레말'을 내세울 때 겨레가 살고 나라힘이 길러진다. "나랏말이 중국과 달라" 새로 한글을 만든 '세종', "말이 오르면 나라가 오르고"를 밝힌 주시경, "조선 말의 말본을 닦아 영원한 창조 활동의 바른 길을 닦고자" 한 최현배와 같은 분들처럼.

열째, '씨알(민)이 입자(주)란 시대정신이 드러나기 때문이다. '씨알이 입자(민주)'가 되어 고루 문화 즐기려는 뜻이 담겨 있다. 많은 사람이 모여서 함께 가면 새로운 길이 열리듯 그 뜻을 쉬 알게 되어 '말글 입자'가 받아들였기 때문이다.

열한째, '전자말 시대'에 한글과 잘 어울려 쓸 수 있기 때문이다. '농업'과 '상공업'에서 '지식 정보'로 무게 중심이 바뀐 오늘날, 샘들과 누리그물의 '새누리'에서 한국말과 한글이 잘 어울린다. 한글로 된 토박이말은 우리 겨레가 나라 안팎으로 '한물결'을 꽃 피우는 숨은 힘인 것이다.

열두째, '겨레삶'을 바로 이끄는 샘터이기 때문이다. 오늘의 나라임자들과 자라나는 겨레들이 겨레말을 사랑하고 지키는 마음을 일깨운다. 누리거울인 '말글터(언론)와 가르치고 배우는 배움터(학교)에서 즐겨 써 버릇함으로써 누구나 막힘없이 참겨레 삶을 가꾸어 나갈 수 있다.

### 3. 맺음말

전자말 시대의 '새말'은 가장 적은 값으로 높은 보람을 얻는 사회의 필수조건이다. 하나의 새말이 모든 나라임자들에게 순식간에 전달되어 그 뜻이 이해되는 틀로 말글살이가 이루어지면 '적은 비용, 높은 효율'의 사회가 될 것이다. 요즘은 영어가 대세라고? '작은 프랑스' 캐나다 퀘벡에서는 영어 쓰기가 어렵단다. '빌린말'이 아닌 '겨레말'을 내세워 그 동안의 잘못을 되풀이 말자. '누리꾼'처럼 새말을 만들어 쓰면 토박이말도 70%는 쉬 넘길 것이다. '누리꾼' 쓰기는 '토박이말'을 살린 좋은 본보기다. 참 겨레삶을 가꾸는 길이요, 참다운 '빛찾음(광복)'의 열쇠이다. 이제 함께 그 뜻을 지키고 새기며 나아갈 때다. 그동안 우리나라의 말글 정책에서 뒷전이었던 '새말 만들기'를 새롭게 자리매김하고 겨레삶을 복되게 드러내며 함께 나아가자.

### 【도움받은 책과 글】

- 국립국어원(2004), 『2004년 신어』, 국립국어원.  
 강신항(1991), 『현대 국어 어휘사용의 양상』, 태학사.  
 국어순화추진회 엮음(1989), 『우리말 순화의 어제와 오늘』, 미래문화사.  
 고길철(1995), 『우리 시대의 언어게임』, 토담.  
 김두루한(2008), 『판나라말을 어떻게 받아들일까』, 글로벌교육문화연구원, 제1권 제1호, 글로벌교육문화연구원.  
 김미형(2005), 『우리말의 어제와 오늘』, 제이앤씨.  
 김세중외(2004), 『말이 올라야 나라가 오른다』, 한겨레신문사.  
 김수업(2006), 『말꽃타령』, 지식산업사.  
 김수열(2006), 『한국말의 즐기 합치기와 새말 만들기』(박사학위논문), 상명대학교 대학원.  
 김정수(2010), 『학술 및 전문 용어의 오늘과 내일』, 나라사랑 제119집, 외솔회.  
 김하수(2011), 『국어순화의 비판적 대안』, 새국어생활 21권 제2호, 국립국어원.  
 남기삼·김하수(1995), 『당신은 우리 말을 새롭게 바르게 쓰고 있습니까?』, 샘터.  
 남영신(2000), 『안 써서 사라져가는 아름다운 우리말』, 리수.  
 박용규(2011), 『문세영 『조선어사전』의 편찬 과정과 국어사전사적 의미』, 동방학지 제154집, 연세대학교 국학연구원.  
 박종덕(2008), 『외래어는 국어인가?』, 562돌 한글날 큰잔치 학술토론회, 한글문화연대.  
 송기형(2004), 『프랑스어 사용법 연구』, 솔.  
 시정곤(2003), 『한국어가 사라진다면』, 한겨레신문사.  
 엄시열(2010), 『토박이말로 여는 한국어 수업의 사상과 언어』, 문사철.  
 이경복(1995), 『겨레여, 생각이여, 말이여』, 고려원.  
 이상태(2010), 『사고력 함양을 위한 국어교육 설계』, 박이정.  
 이오덕(1995), 『우리글 바로쓰기3』, 한길사.  
 최기호외(1993), 『말이 오르면 나라도 오르고』, 한국 바른말 연구원.  
 허웅(1981), 『언어학-그 대상과 방법』, 샘문화사.

발 표 2

## ‘네티즌’도 한국어이다

김 진 해

경희대학교 교양대학 후마니타스 칼리지 교수

## | 발표 2 |

## ‘네티즌’도 한국어이다

김진혜

(경희대 교양대학 후마니타스 칼리지 교수)

## 1. 들어가는 말 대신에

나는 올 들어 페이스북을 쓰고 있다. 어떤 사람이 페이스북을 ‘페북’으로 줄여 쓴다는 걸 알았다. 나도 줄임말을 썼다. 한참 지나 또 다른 사람이 페이스북을 ‘얼숲(얼굴숲)’이라고 썼다. 느낌이 좋아 이 말을 몇 번 썼다. 페북 친구들 몇 명도 ‘얼숲’이란 말이 좋다는 반응을 보였다. 그렇지만 내가 쓰는 말을 보면 다소 공적인 자리에서 말할 때는 ‘페이스북’을, 페이스북을 잘 아는 사람들과 얘기할 때는 ‘페북’을 쓴다. ‘얼숲’? 거의 쓰지 않는다.

지난 4월 캐나다 토론토 경찰이 강연 중에 “성폭행을 당하지 않으려면, 여자들이 험한 여자(slut)처럼 옷을 입지 말아야 한다”고 말한 것에 대해 여성들이 되레 노출이 심한 옷을 입은 채 거리를 활보하며 ‘몸에 대한 권리’를 부르짖었다. 이를 ‘슬럿워크(slutwalk)’라고 한다. 한국에서도 최근 ‘잡년행진’이란 이름으로 슬럿워크가 펼쳐졌다. 나는 ‘슬럿(slut)’이라는 영어단어의 뜻을 알지 못해 기억하기 어려웠지만, ‘잡년’은 알고 있어 ‘잡년행진’은 쓴다. 대신 ‘슬럿워크’든 ‘잡년행진’이든 이 기사를 접하지 못한 사람에게는 그게 뭘 뜻하는지 설명을 해야 했다.

영화에는 <슈렉>처럼 새로운 이야기가 계속 이어지는 ‘연작물(시리즈물)’이 있고, <프랑켄슈타인>처럼 같은 이야기를 새롭게 각색하는 ‘리메이크 영화’가 있다. 최근에는 <혹성탈출: 진화의 탄생>이 개봉하면서 요즘 영화계에서는 ‘리부트 무비(reboot movie)’가 얘기되고 있다고 한다. 마치 컴퓨터를 재부팅하듯 익숙했던 시리즈를 전혀 새로운 이야기로 다시 탄생시킨 영화를 말한다.

나에게 이 세 이야기의 공통점은, 웃기게도 시골에 계신 내 늙은 어머니에겐 이 단어들을 말하지 않을 것이고 앞으로도 그럴 가능성은 거의 없다는 점이다. 그것이 ‘페이스북’이 아닌 ‘얼숲’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슬럿워크’가 아닌 ‘잡년행진’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리부트 무비’가 아닌 ‘재시동(?) 영화’라고 할지라도....

반면에 나는 내 늙은 어머니와 ‘난닝구’와 ‘뺨쓰’ 차림으로 ‘테레비’를 보다가 ‘쓰레빠’를 끌고 동네 ‘점방’에 가서 김밥을 말기 위해 ‘다팡’을 사오기는 할 것이다. 나는 지금도 ‘자동차에 구멍이 났다’는 말보다 ‘자동차에 빵꾸가 났다’는 말을 많이 한다.

한 개인 속에도 이렇게 복잡한 언어적 정황이 놓여 있다. ‘언어순화’는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되묻게 되는 것은 바로 이 복잡한 지점이다. 이를 검토하지 않는다면 언어순화(국어순화)에 대한 논의는 언어 사용자들의 실제 언어 사용 현실과는 무관하게 반복적이고 고답적일 수밖에 없다. 그래서 우리는 ‘언어순화’란 무엇이고, 그동안 언어순화의 성과는 어떠한가 하는 정의와 역사를 더듬지 않고 쟁점의 가운데로 바로 들어가 보려고 한다.

## 2. 언어순화의 어려움 또는 불가능성

## (1) 인간은 말을 기원론적으로 쓰지 않고 효과와 맥락에 따라 쓴다

언어 사용자는 언어를 기원론적으로 기억하지 않는다. 그것이 고유어인지, 한자어인지, 일본어인지, 영어인지에 큰 관심이 없다. 자신의 처지에서 어떤 표현이 효과적이고 맥락에 가장 부합한지를 순간순간 판단하면서 쓴다. 기원을 따지는 사람은 일부 국어학자나 한글운동가 등 전문가들뿐이다.

또한 ‘언어 경제성’을 충실히 따르는 언어 사용자는 고집스러워서 반대급부가 매력적이지 않은 한, 한 번 입에 익힌(기억한) 말은 다른 말로 바꾸는 ‘비경제적인’ 노력을 하지 않는다. ‘참살이’라는 낱말의 뜻이 아무리 아름답고 깊다 하여도 ‘헬빙’이 입에 붙은 이상 바꾸지 않는다. ‘누리집’이라고 하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

## (2) 경험적으로도 그렇다

그간의 언어순화의 성과를 산술화시켜 보라. 어떤 일의 성과(결과)를 놓고 그것이 갖고 있는 정당성을 모두 평가할 수는 없지만, 역사적 누적 결과를 보고 언어순화의 방향을 설정하는 데 참고할 수는 있을 것이다. 건축 용어, 운동 용어, 출판 용어 등 각종 전문영역에서 행해진 언어순화 노력의 처참한 결과를 살펴볼 필요도 없다. 멀리 갈 필요도 없이 최근의 언어순화 성과를 보자. 다음은 국립국어원 ‘우리말다듬기’ 사이트에서 무작위로 뽑은 40개의 예이다. 순화어가 무엇인지 맞춰보라(답은 맨 뒷장).

네터즌		슈터링	
파이팅		뉴타운	
올인		클러스터	
웰빙		파트너십	
리플		빅리그	
풀옵션		블루오션	
롤모델		블루투스	
포커페이스		호스피스	
러브샷		엑스파일	
멀티탭		슬로시티	
워킹맘		선루프	
아이젠		다치페이	
아킬레스건		헤드셋	
캠프파이어		핫팬츠	
갈라쇼		스킨십	
브런치		다크서클	
스마트폰		메신저	
노이즈마케팅		이모티콘	
아이콘		스팸메일	
사이버대학		후카시	

아마 10개를 넘기지 못할 것이다. 2011년 8월 현재 320개 가까운 순화어(디들은 말)가 제시되어 있다. 왜 이런 순화어들 대부분이 '정착'되지 못하는가?

앞서 말한 '언어 경제성' 논리에 따르는 언어 사용자들에게 자신이 이미 쓰는 단어를 대체할 만한 매력을 갖고 있지 못하기 때문이다. 또한 이러한 일이 우리말에 대한 '되돌아보기(성찰)', 또는 하나의 '말놀이'는 될지 모르지만, 자신의 몸의 언어로 쓰기로 각오하는 효과에까지는 미치지 못하기 때문이다. 의미에 대한 음미와 재해석, 기존 어휘망과의 관계 재설정 과정은 거치지 않고 단순 직역(또는 약간의 의역)에 머무르기 때문이다. 단순히 기표의 일대일 교체로 이루어진다. 그것이 문장에서 쓰이는 경우는 거의 없다. 마치 영어 단어를 아무리 외워도 영어 문장을 만들지 못하는 것처럼. 고민되지 않은 교체는 쉽게 잊혀지는 법이다.

이질적인 문화의 만남 속에서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것이 순화 이전에 번역<sup>1)</sup>의 문제이다. 일본 근대기에 난학(蘭學)을 통해 서구화할 때, 그들이 접한 문명은 기존의 문명과는 전혀 새로운 개념의 홍수에 휩싸였다. 그래서 그들은 없는 단어를 조어(造語)했다. 야나부 아키라의 『번역어 성립 사정』을 보면 'society(社會), individual(個人), modern(近代), beauty(美), love(戀愛), being(存在), nature(自然), right(權利), freedom(自由), he/she(그/그녀)' 등 10개

1) 번역을 한 국가에서 한 국가로의 일방적인 유입으로만 보는 견해를 경계해야 한다. 번역은 상호적이다. 설령 일방적인 방향으로만 번역이 이루어진다고 해도 해당 국가의 언어가 망가지거나 파괴되거나, 급기야 '사멸'하는 것이 아니다. 도리어 새로운 의미가 만들어진다. 이것이 우리말을 더욱 풍요롭게 만드는 것이다.

의 서구 열강에서 수입한 개념을 번역어로 옮기는 일본인의 고통스러운 과정이 소개되어 있다. 'individual'을 번역하기 위해 '單', '獨', '單一個', '獨一個人', '一個人', '個人' 등의 다양한 번역어를 각종 매체에 제안하고 토론하면서 하나의 번역어로 정착시켜 갔다. 이러한 과정은 '개인'에 대한 개념이 없는 당시 일본의 현실을 재조정하는 과정이다. 우리는 그것을 직수입했을 뿐이다. 그것이 한국(조선)의 근대화가 안고 있는 태생적 좌절이다.

외국어/외래어가 ('지나치게 많이') 사용된다는 것은 그에 해당하는 ('한자를 포함한) 고유어'가 없다는 뜻에만 머무르지 않는다. 만약 외국어의 사용이 대응 고유어의 부재 때문만이 라면 지금의 언어순화(우리말 다듬기)처럼 대응 고유어를 발명하여 제시하면 쉽게 고쳐질지도 모른다. 문제는 외국어에 해당하는 말이 없다는 것은 한국에 그 외국어에 대응할 만한 '현실'이 없다는 점이다. 그래서 해당 외국어는 한국어에 사용되는 순간, 새로운 어휘가 들어옴과 동시에 새로운(낯선) 현실이 도래하는 것이다. 새로운 어휘가 새로운 현실과 결부되고 언어 사용자가 그 두 관계를 하나의 전체로서 기억하고 사용하기 때문에 그 사이에 '순화하자'는 의견이 설득력 있게 개입할 여지가 사라진다.

(3) 사회적 짐적물로서의 어휘부는 중심적 요소와 주변적 요소의 연속변차선으로 존재한다

아래의 예들은 같지는 않지만 비슷하게 쓰일 수 있는 문장들로 어떤 것이 쉽고 빠르게, 그리고 많은 언어 사용자들을 포괄하며 전달되는지 알 수 있다.

- ㄱ. 나는 사는 게 재미있다.
- ㄴ. 나는 삶을 영위하는 데 만족하고 있다.
- ㄷ. 본인은 본인의 인생을 향유하며 살고 있다.
- ㄹ. 나는 내 라이프가 엔조이하다.
- ㅁ. 나는 내 라이프스타일을 라이프크한다.

- ㄱ. 나는 점심을 많이 먹었다.
- ㄴ. 나는 점심 식사를 과하게 했다.
- ㄷ. 나는 오찬을 과하게 들었다.
- ㄹ. 나는 점심 때 과식을 했다.
- ㅁ. 나는 런치를 해비하게 먹었다.

- ㄱ. 그녀는 성적 매력이 있다.
- ㄴ. 그녀는 색기가 흐른다. ('색기': 사전 미등재어)
- ㄷ. 그녀는 교태가 넘친다.
- ㄹ. 그녀는 관능적이다.

- ㄱ. 그녀는 에스 라인(s line)이다.
- ㄴ. 그녀는 섹시하다.
- ㄷ. 그는 남성다운 매력에 있다.
- ㄹ. 그는 거칠다.
- ㅁ. 그는 터프하다.

문제는 각 예문의 첫 문장만이 우리말다운 우리말, 모범적인 우리말이라고 제한할 수 없다는 점이다. 그것은 구어와 문어의 문체적 차이, 언어 사용자의 문맥적 상황, 전략적 선택 등에 따라 다르게 사용된다. 이런 문장들의 사용에서 우리가 고려해야 할 것은 '아름다운 우리말'이나 '오염된 외국어/외래어나'라는 기준보다는, '적절성, 공공성'에 부합하느냐는 기준이어야 한다(물론 이 또한 상대적인 기준이지만). 언어 사용자들은 언어 전략적으로 다양한 언어 표현을 선택할 권리가 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자기 맘대로'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은 과연 몇이나 될까? 별로 없을 것이다. 각자 자기가 속한 언어문화적 조건 안에서 구성원으로 승인받는 방식의 언어를 사용할 것이다. 친한 친구와 대화할 때, 적대적인 관계의 사람과 대화할 때, 경찰과 대화할 때, 상사와 대화할 때, 어르신들과 대화할 때, 아이와 대화할 때, 남자와 대화할 때, 여자와 대화할 때, 직장에서 대화할 때, 집에서 대화할 때 어떤 언어전략을 동원하는지 생각해 보면 알 것이다. 다 다른 언어를 사용한다. '진정한' 자율의지로 자기 마음대로 언어를 작동하는 사람은 없다.

- ㄱ. f(x)의 <피노키오>  
(Remember Me) I'm In Da Da Da Danger 피노키오! Remember Me A-woo! 어디 보자 읽어보자 네 맘을 털어보자. 에메랄드 훑쳐 박은 눈동자 스텍스릭 머리부터 발끝까지 스캔해 정정형 칼날보다 차갑게 그 껍질 벗겨내. 난 지금 Danger. 한 겹 두 겹 페스츄리처럼 얇게요. (Danger) 스며들어 틈 사이 풀처럼 너는 피노키오 너 밖에 모르는 내가 됐어. 아슬아슬 위태위태 시작되는 쇼! 딱따닥따닥 땃따따 짜릿짜릿 할거다. 금금투성이의 너 (딱뽀뽀 마라 너) 조각조각 땃따따 꺼내보고 땃따따 맘에 들게 널 다시 조립할거야.
- ㄴ. 이오덕의 <새와 산>  
새 한 마리/ 하늘을 간다// 저쪽 산이/ 어서 오라고/ 부른다// 어머니 품에 안기려는/ 아기 같이// 좋아서 어쩔 줄 모르고/ 날아가는구나!
- ㄷ. 김용택의 <예쁘지 않은 꽃은 없다>  
꽃은 참 예쁘다 / 풀꽃도 예쁘다 / 이 꽃 저 꽃/ 저 꽃 이 꽃/ 예쁘지 않은 꽃은 없다

K팝 가수들의 가사는 오래 기억되지 않을 것이다. 그것은 리듬을 소거했을 때 무의미하기 때문이다. 여기서 무의미하다는 말은 소멸되지 않는다는 뜻이지 그 자체로 불순하기 때문이

라는 말은 아니다. 오직 그 음악의 향유층(그게 특정 세대인지 모르지만)에만 가닿는 말, 반대로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배제하는 말은, 그들이 전략적으로 선택한 것이다. 그들은 실패할 것이다. K팝이 상업적으로 성공할지는 모르지만, 오래도록 기억되고 두고 두고 불리는 예술적 성취는 이루지 못할 것이다. 안정된 언어로 기억되지 않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것이 우리의 언어 상황이다. 언어의 정연함은 다양하다. 국어학자나 교육자들이 설정한 정연함만이 절대반지가 아니다.

이런 이유로 개인의 선호와 언어 선택권에 대해 '순수한 언어'라는 논리를 강제하는 사회는 바람직하지 않다. 어떤 언어를 사용해도 안전한 사회가 되어야 한다. 위의 예문들에서 후반부의 외국어가 남발된 언어도 용납되어야 한다. 내가 쓰지는 않지만 기꺼이 '그것 또한 한국어이다'고 할 때 한국어의 다양성과 가능성이 열린다. 언어는 사회적 집체물이기 때문에 중심적 위치를 차지하는 어휘들이 있고 주변적이고 일시적으로 쓰이는 어휘들이 있다. 문제는 이들이 사회적 총체로서 우리의 언어를 구성한다는 점이다.

#### (4) 언어순화의 철학적 기반은 여전히 언어순결주의이자 언어민족주의이다

일본 제국주의의 지배적 언어로부터 조선어의 사용이 제도적으로 금지된 상황에서, 강탈당한 언어를 보호/유지하기 위한 노력은 민족어의 사멸 상황에 대한 몸부림이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하지만 그 시기를 반성적으로 되돌아본다면, 그러한 몸부림 속에 우리 민족과 민족어의 언어적 우월성, 또는 독자성을 지나치게 강조하지 않았는가 살펴볼 일이다. 사멸 위기에 처한 언어를 유지하는 일과 엄존하는 언어를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는 다른 차원이 일이다.

언어순화는 하나의 언어 형태가 다른 언어 형태보다 더 순수하거나 이상적인 형태라고 본다. 언어순화는 불순하다고 여기는 언어 형태로부터 순수한 형태를 지키려고 하는 언어순결주의를 바탕으로 한다. 특히 한국의 언어순결주의는 규범적 언어순수주의와 애국적 언어순수주의가 혼합되어 있다. 이는 한자나 일본어식으로 된 낱말을 고유어로 바꿔서 말하는 것, 또는 서양에서 들어온 외래어를 한자어나 고유어로 바꿔서 말하는 현상 등에서 발견된다. 외국어/외래어의 유입을 방어적, 배타적, 수세적으로 보고 가능하면 이를 배제 또는 적출하려고 한다.<sup>2)</sup>

또한 의미나 용법이 달라진 것에 대해 '오용', 또는 '타락'이라고 평가한다. 그래서 우리말을 '바르게' 쓰려면 '틀리다'와 '다르다'를 혼동하면 안 되며, 우리끼리는 '저희 나라'라고 쓰면 안 된다. 긍정적인 서술어 앞에는 '너무'를 쓰면 안 되며, 감정을 나타내는 서술어(심리형용사) 뒤에는 '-ㄴ 것 같아요'를 쓰면 안 된다고 말한다. 예를 더 들자면, 이수열 외(2004), 『말

2) 국립국어원 '모두가 함께하는 우리말 다듬기' 누리집 때문에 걸린 문구를 보면 이를 잘 알 수 있다: "우리말이 아파요! - 외래어/외국어를 마구 써서 우리말이 위태로워요. 이제 우리가 직접 우리말을 아름답게 가꾸어 봐요. 요즘 어리를 가든지 온통 눈에 띄는 것은 외래어 아니면 외국어뿐입니다. 세계화 시대, 국제화 시대라서 그럴까요? 아무리 그렇더라도 좀 너무하다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우리말이 너무 초라해 보입니다."

이 올라야 나라가 오른다』라는 책을 보면 언어순화에 언어순결주의와 언어민족주의적 사유가 얼마나 깊게 박혀 있는지를 알 수 있다. 어떠한 탈선도, 변주도 허락하지 않는다. 몇 가지 예를 보이면 다음과 같다.

- (i) '따뜻하다, 덥다, 시원하다, 춥다, 부럽다, 자유롭다, 인자하다, 신기하다, 예쁘다, 밍다' 들처럼 '굉장히'와 어울릴 수 없는 온갖 그림씨에 얹어 쓰는데, 이런 현상이 젊은 아나 운서나 교사들만이 아니고, 방송에 나오는 배우이 높다는 이들도 마찬가지여서 국어를 견잡을 수 없이 저절화하고, 사람들의 논리성과 비판력을 죽인다.('굉장히')
- (ii) 말을 가지고 놀 때라도 어디까지나 최소한의 말 질서를 갖추고, 생산성이 있어야 할 것이다. '아햏햏'은 그래서 걱정스럽다.('아햏햏에 대하여')
- (iii) 영화의 성공과는 별도로 영화 제목은 언어적인 면에서 상당한 탈선을 했다고 볼 수 있다. 탈선으로 거두는 부정적 '효과'도 있겠지만, 영화가 대중의 말에 끼치는 영향력을 생각할 때 제목 역시 신중하게 지어야겠다. ('살인의 추억')
- (iv) 국어사전 만드는 사람들에게 왜 그렇게 본래에 어긋나는 말을 사전에 올리고 치졸한 예문들을 늘어놓았느냐고 물으며, '사람들이 많이 쓰니까 그랬노라'고 한다. 얼마나 어처구니없는 노릇인가? 국어사전의 구실이 치졸하고 잘못 쓰는 말을 많이 모아 널리 퍼뜨려서 나랏말이 오르는 것을 가로막는 것인가? ('인하여')
- (v) 제대로 된 언어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마음에 따라 웃는 본모습을 되찾아야 한다. '우스운' 것을 '웃기는' 것으로 말하는 수동성에서 벗어나는 것만으로도 우리의 언어와 문화를 주체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게 될 것이다.('웃기는 사람?')
- (vi) 한국어는 지구상 6천 가지 가까운 언어 중에서 열세 번째 정도로 사용 인구가 많은 큰 언어이다. 그리고 아득한 옛날부터 우리 조상들이 써 와 오늘에 이른 말이다. 이 자랑스럽고 당당한 우리말을 스스로 아끼고 보살피지 않는다면 누가 지켜줄 것인가.

이러한 생각은 언어순화론자들에게서 공통적으로 발견할 수 있다. 이러한 언어순결주의적 태도는 그것을 어긴 사용자를 정신 상태가 글러먹었고 예측적이고 주체성을 망실한 사람이라고 평가한다. 좀 더 감정이 격해지면 '나라 팔아먹을 매국노!'라고 낙인찍는다.

우리는 언어순화에 동원되는 이러한 논리의 폭력성과 단순성을 의심한다. 올바른 언어란 없다. 적절한 언어만이 있다. 그 적절성 또한 삶의 국면마다 다르다. '폼위'와 '천박', '민족'과 '반민족', '아름다움'과 '추함', '좋은 언어'와 '나쁜 언어'라는 이분법은, 그래서 우리 입에서 나오는 평범하되 자연스럽게 뒤섞인 말을 거세하게 한다.

순화는 결국 질서의 순화, 체제의 순화로 귀결된다. 새로운 언어의 가능성을 막는다. 『천개의 고원』에서 들뢰즈가 인용한 프루스트의 '결작들은 일종의 외국어로 쓰인다'고 한 말은 의미심장하다.<sup>3)</sup> 우리가 우리의 말을 더욱 강화하고 표현의 가능성을 확장하기 위해서는 한국

3) 프루스트는 이렇게 말했다. "결작들은 일종의 외국어로 씌어진다." 그것은 말더듬기와 같은 것이다. 단지 파를 만이 아니라 랑그가 말더듬기가 되는 것이다. 외국인이 되어라. 하지만 모국어가 아닌 다른 언어로 말하는 경우만이 아니라, 네 모국어 속에서 외국인이 되어라. 2개 국어나 다국어 병용자로 존재하라. - 들뢰즈, 『천개의 고원』, pp. 190~191.

어 속에 (비유적이든 직설적이든) '외국어'를 도입해야 한다. 언어는 다중방식으로 존재한다. 언어순화론은 다중방식으로 언어가 운용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용납하지 않는다. 입에 버터를 바른 듯이 영어를 섞어 쓰는 사람이 있고, 한자어에 토만 붙인 듯이 쓰는 사람이 있고, 되도록 쉬운 고유어를 쓰려고 애쓰는 사람이 있다. 이들 각각은 정신이 옳게 박혔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그들의 삶에 적절한 언어를 전략적으로 선택하여 쓰는 것이다.<sup>4)</sup>

더욱이 언어순결주의는 언어 사용자를 계도/계몽의 대상으로 보고 '올바른' 표현을 지속적으로 강요한다. 그런 점에서 언어순결주의는 위계적이고 엘리트주의적이다. 순화의 궁극적 도달점은 '아름다운 우리말'을 사용하여 주체성 있는 국민으로 정신을 개조하는 것이다(허용(1984), <국어순화는 왜 해야 하는가>). 순수한 언어가 순수한 정신과 일치된다고 본다. 외래어나 외국어를 고유어나 한자어로 바꾸면 곧바로 순수한 한국어가 실현된다고 주장하는 것은 지나친 단순화일 뿐이다.

(5) 다언어 사회로 변화하고 있고, 새로운 단어 유입을 통제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언어순결주의가 지금의 유사-이중언어 생활을 강제하는 지금의 상황에도 여전히 유효한 사유의 기반이 될 수 있는지 되돌아 봐야 할 일이다. 소설가 이태준의 말을 먼저 들어보자.

'그는 클럽에서 캡을 찾아 들고 트라비아타를 휘파람으로 날리면서 호텔을 나섰다. 비 개인 가을 아침, 길에는 샘물같이 서늘한 바람이 풍긴다. 이제 식당에서 마신 짙은 커피 향기를 다시 한 번 입술에 느끼며 그는 언제든지 혼자 걷는 남산 코스를 향해 전차길을 걷는다.'

이 문장에서 클럽, 캡, 트라비아타, 호텔, 커피, 코스 등의 외래어를 굳이 안 쓴다고 해보라. 이 외에 무슨 말로 '그'라는 현대인의 생활을 묘사해낼 것인가? ... 새 말을 만들고, 새 말을 쓰는 것은 유행이 아니라 유행 이상 엄숙하게, 생활에 필요하니까 나타나는 사실임을 이해해야 할 것이다. 커피를 먹는 생활부터가 생기고, 퍼머넌트 식으로 머리를 지지는 생활부터가 생기니까 거기에 적합한 말 즉 커피, 퍼머넌트가 생기는 것이다. -이태준, 『문장강화』, 창비, p. 27.

현대인의 생활을 적절하게 묘사하기 위해 외래어(외국어)를 쓰지 않을 수 없다는 이태준의 고백은 지금의 한국 상황에 적용하면 더 적절해 보인다. 한국의 언어 환경도 다언어 사회로 급격히 변하고 있다.<sup>5)</sup> 디지털 사회는 일부 전문가에게만 정보 접근을 허용하지 않고, 만인이

4) 그것이 비록 배운 자, 가진 자, 권력자의 입에서 자꾸만 튀어나오는 것이라고 할지라도, 용납되어야 한다. 그들 또한 삶의 전략에서 영어가 과잉 분출되는 것이다.

5) 대부분의 부모들은 자신들의 아이가 이중언어를 구사할 수 있기를 열망한다. 그것이 불가능한 허위의식이거나 이 사회에 생존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선택하는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한국어 사용자들이 외면할 수 없는 보편적 상황이다. 그것이 원어인 화자와 자유롭게 대화할 수준에 도달하지 못하더라도, 훨씬 많은 단어를 외우고 익히게 만든다. 이러한 영어 단어들을 한국어 표현에 자주 쓰는 것은 어쩌면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어디든지 접속하고 공유하고 유포하는 구조를 만들었다. 이제 국어학자들이 아무리 한국어 속에 범람하는 영어를 때려잡으려고 해도 불가능하다. 이 상황은 언어순화론자들이 거부할 수 있는 성질이 아니다. 영어의 범람 상황 그 자체는 좋은 일도 아니지만 나쁜 일도 아니다. 그저 거역할 수 없는 우리의 언어 현실일 뿐이다.

지구화된 현실에서 만인이 정보에 자유롭게 접근하게 된다는 것은 정보의 양(즉, 새로운 어휘의 유입량)이 이전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거대하다는 뜻이다. 새로운 단어의 유입 주체가 외국에 갔다 온 사람들에 국한되지 않고, 스마트폰으로 바로 정보 검색을 하고 댓글을 다는 내 친구들이다. 그렇다면 단일어로서의 한국어라는 논리보다는 오염어로서의 한국어의 가능성을 모색해야 하지 않을까.

### (6) 국어사랑이 반드시 나라사랑이 아니다

언어순결주의가 갖는 오류 중의 하나는 언어를 가다듬으면 세계가 바뀐다고 생각한다는 점이다. 말을 흔탁하게 쓰면 정신이 흔탁해지고 정신이 흔탁해지면 나라가 혼란에 빠진다고 생각한다. 언어를 아름답게 쓰면 세계도 아름다워진다는 생각은 일면적이고, 그래서 위험하다. 말을 살린다고 나라가 사는 건 아니다. 말이 아름답다고 해서 정신세계가 아름답고, 말이 거칠다고 정신이 황폐한 게 아니다. 도리어 그렇지 않은 자가 허다하다. '국어사랑'과 '나라사랑'을 등치시키는 건 단순 논리이다.

생각해 보자. 나라가 어려워지는 것이 언어 때문인가? 국가의 위기는 어디에서 오는가? 정 말 외국어를 남용하고 문법에 틀린 말을 써서 그런가. 도리어 언어적 담론의 비건강성, 말의 의미와 현실의 불일치성이 언어의 위기를 만드는 것 아닌가. 담론이 유통되는 사회를 건강하게 만드는 것이 언어를 건강하게 만드는 것이다. 왜냐하면 그러지 않으면 언어의 핵심인 의미는 계속 텅텅 비거나 왜곡된다.

## 3. 나오면서

### (1) 언어순화의 유일한 존재 가치: 언어의 공공성과 언어 민주주의의 확대

언어순화 운동하시는 분들이 '말이 올라야 나라가 오른다'는 말의 충심을 안다. 누구나 알 아듣기 쉽고 쓰기 쉬운 우리말을 쓰는 많은 분들이 노고를 잊지 않는다. 그분들이 우리에게 모범인 건 그분들이 말에만 그치지 않고 바른 삶을 바탕으로 하여 자신의 생각을 문학(글)으로 구현해 보였다는 점이다. 언어는 바른 삶의 결과이지 바른 삶의 원인이 될 수 없다.

'바른말, 고운 말, 쉬운 말'도 언어 사용자의 언어적 윤리성에 맡겨야 한다. 자신의 언어가 공적 공간에서 얼마나 많은 이들에게 닿는지, 얼마나 많은 이들을 소외시키는지를 판단해야 한다. 이러한 언어적 윤리성은 언어의 공공성을 의식하는 일이다. 윤리는 주어지는 게 아니라 스스로 획득하는 것이다. 언어사용자 스스로 충분히 언어 윤리적인 판단을 할 능력을 지닌다. 그래서 바르고 쉬운 말을 쓰는 것은 권장할 만한 일이지만 강제할 만한 일은 아니다.

언어를 통해 타인과 소통한다는, 곧 언어는 청자를 전제한다는 의식이 존재한다면, 그래서 모든 사람이 언어를 통해 제3의 어떤 진실을 위해 노력한다는 생각이 보편적으로 있으면 큰 문제가 없다. 제3의 어떤 진실은 가능하면 많은 이들이, 가능하면 쉽게 말해져야 한다. '나는 이렇게 말했는데, 당신은 알아들었는가?' 하는 반성적 사고가 있으면 된다. 그런 데 초점을 맞추면 문제가 별로 안 생길 텐데, '너는 왜 이렇게 잘못 말해!'라고 욕박지르면 해법이 없다.

말은 언중의 것이지, 전문가의 것이 아니다. 언어의 윤리성은 언어순화의 시민성을 구축할 때 가능하다. 권력과 협박을 통해서도 가능하지 않다. 혼란스러운 한국어를 용납하고 그 속에서 새로운 한국어의 가능성을 기다려 줄 때 언어의 윤리성을 고민할 수 있는 판이 마련되는 것이다. 국가권력은 속성상 그런 것을 기다려줄 수 없다.

언어 사용자들에게 언어에 대한 진지한 태도를 갖게 하는 것, 그리고 언어 속에 내재된 심미적 요소에 대해 성찰하는 태도를 길러줄 필요가 있다. 그게 교육이 존재하는 이유이자, 언어순화가 존재할 유일한 이유이다.

### (2) 그렇다면 국어(민족어)는 언제 사멸하는가? - 한국어 있는 한 절대로 사멸하지 않는다

지금처럼 영어가 도처에 난무하는 상황이면 국어는 사라지게 될 것이라며 순화론자들이 그토록 걱정하는 언어의 죽음은 실제로 언제 닥치는가? 한 언어가 죽었다는 말은 한 사람이 죽었다는 말과 같다. 사람이 없으면 언어 또한 존재하지 않는다. 언어는 아무도 그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이 없을 때 죽는다. 언어는 말할 대상이 있을 때에는 그 내용과 형식이 어떠한 간에 살아 있는 것이다. 순화론자들이 걱정하는 '국어의 죽음'은 자신이 쓰는 언어가 '한 국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모두 사라지지 않는 한 도래하지 않는다. 그렇다면 순화론자들이 걱정하는 '국어의 죽음'은 실은 자신이 설정한 어떤 추상적 상태의 국어의 죽음을 말하는 것이다. 그것은 자연스러운 뒤섞임이지 죽음이 아니다.

언어가 죽음 직전, 즉 빈사 상태에 빠지는 것은 바로 자신들의 언어가 다음 세대로 전달되지 않는 상태인데 그 또한 도래하지 않을 것이다. 텔레비전 프로그램명이나 상품명, 광고 문구, 전문가의 말은 대부분 일시적이다. 대부분 순간적으로 사용되다 사라지는 수많은 어휘들은 (우리들의 언어는 사회적 '흐름'이나 암묵적 복합 질서로서 그 공통 특성이 지속적으로 전수된다는 점에서) 전수될 가치가 없는, 한시적인 것들이다. 이들의 존재를 과대평가하여 언어의 위기를 조장하지 말라.

(3)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 그냥 좀 놓아두라

후지고 뿌리가 얇은 나라일수록 합리라는 이름으로 많은 것을 이루려고 한다. 하지만 이데올로기적 공세로 언어는 갱신되지 않는다. 이데올로기는 '인위'를 본질로 하기 때문이다. 언어는 '삶의 정황'과 '필요'에 의해 변형/변주될 뿐이다. 우리 사회가 이름이나 명분으로 사람 단속하기를 좋아 하는 사회이지만, 이젠 언어적 변화와 실험에 대해 그 또한 어떤 지점으로 돌아올 것이라는 신뢰 또는 거리두기가 필요한 것이다. 언어 순화에 대한 반성적 사유가 필요한 이유이다(김우창, 『세계의 동그라미』). 언어의 관습적 성격과 관습적 존재양식을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 그냥 가만히 놓아두면 언어적 질서가 어느 정도 형성되거나 유지된다. 그 질서의 본질은 혼용과 오염이다.

언어(한국어)의 근본적 질서가 살아 있는 한 정연하게 잘 쓰인 말이나 못 쓰인 말, 불충분하거나 빠뜨린 말도 모두 말하는 사람의 삶을 보여주는 것이다. 언어순화는 이를 질서 잡으려고 하는데 이는 위계와 관련되며 입법자 노릇을 하려고 하는 것이다. 명백한 하나의 언어 보다는 언어의 다양성을 더 중시해야 한다. 명백한 하나의 언어를 지향하기보다 언어적 표현의 다양성을 더 중시해야 한다. 이태어는 없다. 이상적 언어란 없다. 현실만이 있을 뿐이다.

그래서 우리는 언어 사용자에게 대해, 그리고 지금처럼 '혼탁한' 언어 상황에 대해 너그럽고 유연해져야 한다. 왜래어나 고유어나 하는 것보다, 이러한 고정관념 때문에 한국어 사용자들의 표현 가능성이 좁아지는 것이 더 걱정해야 할 일이다. 우리가 사는 세계는 복합적이고 복잡하다. 인간 조건이 그렇고 언어 조건 또한 그렇다.

“순수는 빈곤하고 억압적이지만, 혼효(混淆)는 풍부하고 관용적이다.”(쓰네카와 구니오)

<다듬은 우리말 답>

네티즌	누리꾼	슈터링	골문어림차기
파이팅	아자	뉴타운	새누리촌(새마을??)
올인	다걸기	클러스터	산학협력지구
웰빙	참살이	파트너십	동반관계
리플	댓글	빅리그	최상위연맹
폴업션	모두갖춤	블루오션	대안시장
롤모델	본보기상	블루투스	쌈지무선망
포커페이스	무표정	호스피스	입종봉사자
러브샷	사랑전배	엑스파일	안개문서
멀티탭	모듬꽃이	슬로시티	참살이지역
워킹맘	직장인엄마	선루프	지붕창
아이젠	눈길덧신	더치페이	각자내기
아킬레스건	지명적 약점	헤드셋	통신머리띠
캠프파이어	모닥불놀이	핫팬츠	한뼉마지
갈라쇼	뒤풀이공연	스킨십	피부교감
브런치	어울침	다크서클	눈그늘
스마트폰	똑똑(손)전화	메신저	쫄지창
노이즈마케팅	구설수홍보	이모티콘	그림말
아이콘	상징물	스팸메일	쓰레기편지
사이버대학	두루누리대학	후카시	품재기

지정토론 1

## 불행한 시대의 정신적 유산을 청산하자

변 정 수  
출판 컨설턴트

## | 지정토론 1 |

## 불행한 시대의 정신적 유산을 청산하자

변 정 수  
(출판 컨설턴트)

토론에 앞서 두어 가지 전제할 것이 있다.

우선, 말은 의사소통의 수단이라는 점이다. 적어도 일상 생활에서라면 어느 누구도 듣는 사람이 쉽사리 의미를 알아채기 어려운 말을 애써 고집하려 들지 않는다. 그러한 행동은 의사소통이라는 목적에 비추어 상대방이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다시 풀이해줘야만 의사소통이 가능해진다는 점에서 매우 비효율적일뿐더러, 때로는 의사소통의 장애를 넘어 사회적 관계 자체를 꼬질꼬질 함으로써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원활한 인간관계를 통해 삶의 질을 유지하는 데 위협할 수도 있는 일이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누군가가 무슨 이유에서든 대화의 상대방을 고려하지 않고 상대방이야 알아듣건 말건 자신이 옳다고 믿는 언어 표현만을 고집한다면, 그것은 그 목적이 순수한 의사소통에 있지 않다는 의미일 수밖에 없다. 이 점은 국어순화 주장의 강력한 근거 가운데 하나로 제시되는 바, 다시 말해 언중들에게 익숙한 '순우리말' 일상어가 널리 쓰이고 있음에도, 굳이 의미를 쉬이 알아채기 어려운 '한자어'나 '외래어'를 사용하는 것은, 자신의 지식을 자랑함으로써 일상적 권력관계에서 우위를 확보하려는 비뚤어진 권위의식이라는 지적에서도 확인되는 내용이다. 물론 이때 중요한 것은 그 말이 어원적으로 고유어인가 외래어인가가 아니라 실제로 발화가 이루어지는 국면에서 의사소통이라는 목적에 충실할까 여부일 뿐이라는 것이 이 자리에서 토론해야 할 내용이지만, 그 전제에서만 큰충분히 일치하는 점이 있다는 것을 확인해 두려는 것이다.

다음으로, 어느 누구에게든 오래 써와서 입에 밴 말을 사회적 강제를 통해 쓰지 못하게 하거나 반대로 좁게 입에 붙지 않는 말을 역시 사회적 강제를 통해 일부러 쓰도록 압력을 행사하는 것은 가능한 일도 아니거나 설령 가능하다 해도 매우 바람직하지 못한 일종의 '사회적 폭력'이라는 점이다. 물론 그것이 과연 바람직한 일인가에 관해서는 토론의 여지가 있을 것이다. 민족정신의 보존이든 또는 다른 무엇이든 더 숭고한 목적을 위해 어느 정도의 '폭력'은 불가피하다는 견해도 있을 수 있을 것이고, 어떠한 목적을 위해서도 그것은 용인되어서는 안 될 '폭력'이라는 견해도 있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하게 지적되

어야 할 것은, 설령 어떤 바람직한 목적을 위해 어느 정도의 '사회적 강제'가 필요하다는 점을 인정한다 해도, 과연 그것이 가능한 일인가이다. 매우 폭력적인 전체주의 사회에서라면 모르겠거니와 '개인의 자유'에 기반하는 현대 민주주의 사회에서, 일상적인 언어생활에 대해 불편을 느끼거나 부자연스러움을 의식할 정도의 사회적 압력을 행사하여 특정한 언어 표현의 발화를 억제하거나 확산시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국어순화의 주장은 그 이상의 옳고 그름을 떠나 사실상 그 이상을 실현할 수단이 없다는 점에서 공허하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설령 국어순화의 방향이 옳다 하더라도 그 방법은 언중이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나지 않아야만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지구상에 존재하는 수많은 개별언어 가운데 오로지 고유어에만 뿌리를 둔 '순수한' 언어는 없다는 점이다. 가령 영어 어휘의 많은 부분이 프랑스어에 기대고 있지만, 그것이 영어의 표현을 더 풍부하게 해주는 소중한 문화적 자산일지언정 영어를 오염시키거나 정체성을 위협하는 불순물은 아니다. 물론 이들 외래어가 프랑스계 혈통의 영국 왕실을 중심으로 한 귀족 계급의 궁정 언어에서 비롯된 것도 어김없는 역사적 사실이며, 프랑스어계의 외래어가 영어의 고유어보다 좀더 고급스러운 표현으로 여겨졌던 것도 어느 정도 사실이다. 그러나 그 사실로부터 곧바로 영국이 프랑스의 문화적 식민지라는 식의 가당치 않은 입론이 도출되는 것은 아니다. 서로 다른 역사적 전통을 가진 문화들이 교류하고 접촉하는 과정에서 개별언어의 표현 영역이 확장되고 더욱 풍성해졌다는 역사적 사례는 이외에도 많다. 물론 적지 않은 언어들이 전혀 다른 언어로 완전히 대체되며 사멸한 사례도 얼마든지 있다. 그러나 이 경우 주목해야 하는 것은 하나의 언어가 다른 언어로 인해 사멸할 수도 있다는 사실 자체가 아니라, 그런 일이 벌어졌을 때는 반드시 매우 패권적이고 폭력적인 부당한 정치적/사회문화적 압력이 동반되었다는 점이다. 가령 한국 사회에서조차도 이제 그 사용 인구가 급격히 줄어든 제주어에서 드러나는 일이거나, 한자어나 일본어 또는 영어를 비롯한 유럽어만이 한국어가 접촉하고 있는 언어의 전부가 아니며 베트남 등 동남아시아 언어와도 일상적인 접촉이 일어나고 있는 이 시대에 '한국어의 순수성'에 천착하는 '국어순화'의 주장이 수많은 이주 노동자들에게 행사할 부당한 패권에 대해서도 성찰이 필요하다. 문화적으로 이질적인 요소 자체를 혐오하고 경원하는 사회가 다른 문화와 건강하게 접촉했던 경우는 없다.

이러한 전제에서, '네티즌'이 옳다거나 '누리꾼'이 옳다거나 하는 주장을 할 생각은 전혀 없다. 많은 사람들이 '네티즌'을 자연스럽게 사용한다면 자연히 '네티즌'을 사용하는 사람이 더 많아질 것이고, '누리꾼'을 자연스럽게 사용하는 사람이 많다면 '누리꾼'을 사용하는 사람이 더 많아질 것이다. 그것은 다른 외래어나 심지어 한자어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이다. 거기에 어떤 정책 수단이 개입할 여지는 없으며, 설령 그런 정책 수단이 있다 해도 이 자명한 원리 자체를 거스르는 방향으로 힘을 쓰지 못할 것이다. 또는 어느 정도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 해도 그것은 사회적으로 더 많은 부작용을 낳는 매우 부당한 폭력과 맞물릴 것이다.

구체적인 표현을 놓고 '이 말이나 저 말이나'를 따지는 것보다, 더 중요하게 지적할 문제는 따로 있다. 언어를 '순화'할 수 있다는 발상 자체가 불행한 시대가 낳은 시대착오적 인식이라는 점이다. 가장 선의로 보더라도, 이러한 인식은 일본어를 공용어로 사용하도록 사회적으로 강제되던 식민지 시대의 경험이 남긴 일종의 정신적 상처이다. 그 시대에서라면 '오래도록 써온 입에 뱀 말'로서 한국어를 보존하려는 노력은 부당한 패권을 행사하는 식민지 정책에 맞서는 정당성을 인정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외래어나 심지어 한자어까지도 백안시하는 태도는 대다수의 언중들이 인류가 축적해온 지적 자산에 접근할 기회가 제한된 채로 일부 특권 계급만이 지식을 전유하던 시대의 산물이기도 하다. 그러한 상황에서라면 '대다수의 언중들에게 낯설고 입에 붙지 않는' 말로 잘난 체를 일삼지 말고 '더 많은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고 실제로 입에 붙여 쓰고 있는' 말들을 사용함으로써 의사소통이라는 본연의 목적에 충실하라는 주장은 일말의 정당성을 지닐 것이다. 그러나 대학 진학률이 80퍼센트를 넘는 시대에 오로지 고유어만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익숙한 말이라고 전제하는 것은 터무니없는 억지이다. 이 또한 다른 문화에 대한 지식을 특권 계급이 독점했던 불행한 역사의 산물인 것이다.

지정토론 2

## ‘네티즌’은 한국어인가

정 재 환

방송 사회자, 한글문화연대 공동대표

## ■ 지정토론 2 ■

## ‘네티즌’은 한국어인가

정 재 환

(방송 사회자, 한글문화연대 공동대표)

저는 국어전문가가 아닙니다. 방송 사회자이고 한글운동을 하는 사람입니다. 방송 언어 사용자로서 고생(?)을 많이 했고, 고생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글문화연대라는 한글운동 단체에서 우리말글을 잘 지키고 가꾸자는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 운동 안에는 우리말글을 바르게 쓰자는 것도 있고 외래어와 외국어의 남용을 삼가고 우리말글을 애용하자는 것도 있습니다.

저는 ‘네티즌’보다는 ‘누리꾼’을 좋아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네티즌’이라는 말을 전혀 쓰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되도록 ‘누리꾼’을 쓰지만 가끔 ‘네티즌’이 입에서 튀어나오기도 합니다. 제 명함에는 핸드폰을 순화한 ‘손전화’라는 말이 적혀 있습니다. ‘핸드폰’이란 말은 거의 쓰지 않지만 실제로는 ‘손전화’보다 ‘휴대전화’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똑똑전화’라는 말을 쓰면 거의 못 알아듣거나 이상한 사람 취급하기 때문에 ‘스마트폰’이란 말을 쓰고 있습니다. ‘전자우편’이라는 말을 쓰지만 ‘이메일주소’ 혹은 ‘이메일’이란 말을 쓰기도 합니다.

이런 저의 모습은 “언어 사용자는 언어를 기원론적으로 기억하지 않고, 자신의 처지에서 어떤 표현이 효과적이고 맥락에 가장 부합한지를 순간순간 판단하면서 쓴다.”는 김진해 선생의 지적에 딱 들어맞는 것 같습니다. 저 자신이 우리말글 애용에 철저하지도 못하고 술선수법도 못하는 것 같아 부끄럽기도 하고 반성도 하게 됩니다. 한편으로는 김진해 선생 발제의 토론자로 자격이 부족하다는 생각도 듭니다. 한마디로 ‘부적격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토론자로서 한두 가지 생각을 말씀드리고 몇 가지 여쭙겠습니다.

김진해 선생은 18쪽에서 한국의 언어순결주의가 규범적 언어순수주의와 애국적 언어순수주의가 혼합된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여기서 애국적이라는 것은 일제 강점기라는 통한의 시기를 경험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한국어에서 언어순화는 민족어를 회복하고 일본어에 오염된 상처를 치료하는 것으로 전개되었습니다. 지금도 한국어에서의 언어순화는 영어로 대표되는 세계어의 침탈에 맞서서 자신을 지

키려는 수호적, 저항적 성격이 크다고 봅니다. 따라서 언어순화를 지나친 순결주의로만 보아서는 곤란하다고 생각합니다.

20쪽에서는 “언어순결주의는 언어 사용자를 계도/계몽의 대상으로 보고 ‘올바른’ 표현을 지속적으로 강요한다. 그런 점에서 언어순결주의는 위계적이고 엘리트주의적이다.”라고 했습니다. 언어순화 운동을 ‘언어순결주의 운동’이라고 할 수는 있겠지만, ‘위계적이고 엘리트주의적’이라는 지적은 좀 어리둥절합니다. 왜냐하면 현장에서 늘 느끼지만, 어느 누구도 국어전문가나 한글운동가들이 자신들보다 위에 있다고 생각하지 않고요, 전문가의 시대라고 해도 국어전문가의 말은 귀담아 듣지도 않고 권위를 인정하지도 않기 때문입니다. 인정은커녕 어떤 누리꾼은 국어학자들을 ‘머리가 돈 사람들’이라고 말합니다.

그럼 이제 몇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선생님은 15쪽에서 야나부 아키라의 『번역어 성립 사정』의 성과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서구 열강에서 수입한 개념을 번역어로 옮기는 일본인의 고통스러운 과정을 언급하고, 개인, 근대, 연애, 존재 같은 말들을 번역어로서 정착시킨 일본인들의 성과를 높이 평가하면서, 우리가 그것을 직수입한 것은 한국(조선)의 근대화가 안고 있는 태생적 좌절이라며 안타까워했습니다.

그런데 근대의 한국인(조선인)들이 하지 못했던 작업들을 지금 한국인들이 조금씩이라도 하고 있습니다. 한때 ‘페러다임’이란 말을 ‘인식의 틀’ 혹은 ‘사고의 틀’ 같은 말로 번역 혹은 대체하려는 시도가 있었고요, ‘매니페스토’를 ‘참공약실천하기’ 혹은 ‘참공약실천운동’ 혹은 ‘신거공약검증운동’ 같은 말로 바꾸려고 했습니다. 애석하게도 바뀌지는 않았습니니다. 그런데 19세기에 이루어진 일본인들의 번역 작업과 지금 번역자나 언어순화론자, 한글운동가들이 하는 작업이 다른 건지, 다르다면 어떻게 다른 건지 여쭙고 싶습니다.

15쪽에서는 언어순화 운동이 거둔 참담한 성과의 예로 국립국어원의 우리말 다듬기 사업을 소개하면서 “이러한 일이 우리말에 대한 ‘되돌아보기(성찰)’, 또는 하나의 ‘말놀이’는 될지 모르지만, 자신의 몸의 언어로 쓰기로 각오하는 효과에까지는 미치지 못하기 때문이다.”라고 하셨는데, 그러므로 우리말 다듬기와 같은 사업은 불필요하다는 것인지 여쭙고 싶습니다.

‘다듬은 우리말 답’이라는 표에는 네티즌에서 후카시에 이르기까지 다듬은 말이 제시돼 있습니다. 선생님의 지적대로 대부분 생소하지만 그 가운데 ‘누리꾼’, ‘참살이’ 같은 말은 어느 정도 알려져 있고 실제로 쓰고 있습니다. 이것을 1980년대에 ‘서클’을 ‘동아리’로, ‘프레시맨’과 ‘신입생’을 ‘새내기’로 바꾼 성과에 비교할 수는 없지만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이루어낸 언어순화 운동의 성과라고 생각합니다.

‘댓글’은 ‘리플’보다 더 많이 쓰거나 대등하게 쓰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표에는 없지만 전자우편 주소에서 ‘콜뱅이’ 같은 말은 본래의 의미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데도 ‘at’ 대신 쓰고

있습니다. 언어순화에 반대하는 분들은 '외국어의 유입이 우리말을 더욱 풍요롭게 한다'고도 주장하는데, 우리말의 풍요를 '리플'이란 말이 들어와서 단순히 우리말 속에 섞이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리플'의 자극으로 인해 '댓글' 같은 우리말이 생겨난 것까지 포함해서 생각해야 한다고 봅니다.

또한 표에 제시된 '산학협력지구'나 '동반관계'라는 말은 굳이 '대체어'라고 할 것도 없을 뿐만 아니라, 표에서 원 말로 제시된 '클러스터'나 '파트너십'보다 쉽게 느껴집니다. 마찬가지로 '투트랙', '그랜드마겐', '메가시티', '포폴리즘', '노이즈마케팅' 같은 말은 매체를 통해 자주 들으면서도 뜻은 쉽사리 파악되지 않습니다. 이런 점을 고려할 때 '순화어가 적절성과 공공성에 반한다'고 단언할 수 있는 것이지요? 오히려 적절성과 공공성에 기여하고 소통에도 도움이 되는 측면이 있지 않을까요?

선생님의 글을 읽으면서 다시 한 번 느낀 겁니다만, 20쪽에서 인용한 이태준의 글에는 외래어의 유입과 언어순화라는 현실에서 고민할 수밖에 없었던 당대 지식인의 고충이 담겨있다고 생각합니다. 외래어를 사용하는 것이 불가피하다는 이태준의 결론에 어느 정도 공감하지만, 언어순화는 필요 없으니 그냥 내버려 두라는 말씀에 대해서는 공감하기 어렵습니다. 선생님은 22쪽에서 "언어 사용자들에게 언어에 대한 진지한 태도를 갖게 하는 것, 그리고 언어 속에 내재된 심미적 요소에 대해 성찰하는 태도를 길러줄 필요가 있다."라고 하셨는데, 이를 위해서도 언어순화운동은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끝으로 김진해 선생께서는 '네티즌'도 한국어라고 말씀하시지만, 외래어는 '외국에서 들어온 말로 국어처럼 쓰이는 단어'라는 표준국어대사전의 설명이 틀리지 않았다면 외래어는 한국어가 아니고 따라서 '네티즌'도 한국어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부 록 1

국어 순화 관련 참고 자료

부록 11

## 국어 순화 관련 참고 자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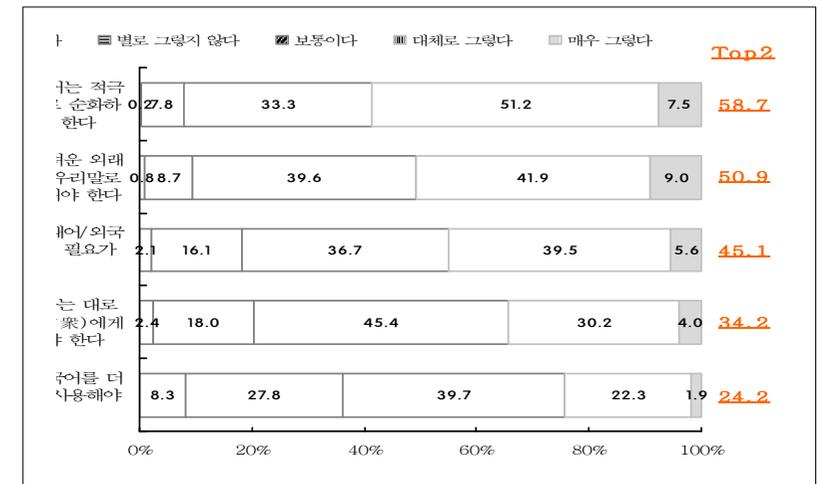
### □ 그동안의 주요 국어 순화 운동

- 우리말 도로 찾기
  - '우리말 도로 찾기' 운동은 1946년 6월 군정청 편수국에서 '우리말 정화'에 대한 방침을 세우고 당시 우리 사회에서 흔히 쓰는 일본말을 찾아 순화의 초안을 만들어 내게 하면서 시작하였다. 그리고 교육계, 언론계, 문필계, 출판계 등의 권위 있는 인사 128명을 모아 '국어정화위원회'를 짜서 이 문제를 토의하고 통과시킨 뒤 다시 심사위원 18명으로 하여금 1947년 2월부터 10월까지 11회의 회의를 열어 보태고 고쳐서 심사안을 만들었다. 그 후 이를 전국에 공개하고 민간의 의견을 구해 다시 수정하여 1948년 1월 12일 전체 위원회 총회에서 통과하여 938개의 왜식 용어(倭式用語)의 순화어를 발표하고 1948년 6월 2일에 조선교학도서주식회사에서 책자로 '우리말 도로 찾기'를 발행하기에 이르렀다.
- '한글전용특별심의회' 설치(1962년 1월)
  - 1962. 5 -1963. 7: 심의회 40여명 위원이 14,159개 어휘를 심의, '한글전용특별심의회 회보'를 발행하였다
- 국어순화운동협의회 발족
  - 국무회의(1976. 7. 23)에서 국어 순화 운동 방안에 필요한 사항, 각 부처 및 국어 순화 추진회 단체가 협조할 수 있는 '국어순화운동협의회' 규정을 의결, 8월 4일 공포하였다. 이를 계기로 1976년 8월 6일 '국어순화운동협의회'가 대통령령에 의해 발족되고, 학계, 언론계 및 교육계 인사 9명과 정부 각 부처 실장, 국장 11명으로 구성된 이 협의회는 '국어 순화 운동을 위한 사업과 방향 제시'를 발표하고 활발한 운동을 펼쳤다.
- 국어심의회 내에 국어순화분과위원회 신설
  - 1976년 11월 15일에 '국어심의회' 내부에 '국어순화분과위원회'가 신설되었고, 각계를 망라한 위원 28명과 전문 위원 3명이 위촉되었다. 여기서 심의 결정된 용어를 모아서 1977년 '국어 순화 자료' 1집, 1978년-1982년까지 2집-5집을 내놓았다.

- 문화관광부(국립국어연구원) 국어 순화 사업 진행
  - 문화관광부는 국립국어연구원과 함께 국어 순화 사업을 진행하여 1992년에 건설·미술·식생활·신문 제작 용어 순화, 1993년에 선거·정치·전산기 용어, 1994년에 봉제·임업 용어, 1995년에 일본어투 생활 용어를 순화하여 1996년에는 '국어 순화 용어 자료집'을 발간하였다. 여기에 수록된 것은 건설 용어 393개, 미술 용어 693개, 봉제 용어 331개, 생활 외래어 751개, 선거정치 용어 451개, 식생활 용어 264개, 신문 제작 용어 144개, 일본어투 생활 용어 702개, 임업 용어 241개, 전산기 용어 1605개 등 총 5575개이다. 1999년에는 패션 디자인 용어 1471개, 기타 외래어와 외국어 106개를 순화한 '국어 순화 자료집 1999'를 냈으며, 2000년에는 문화재 용어 1174개, 언론 외래어 387개, 전기 전자 용어 353개, 금융 경제 용어 159개, 농업 용어 120개, 지하철 운전 용어 140개, 정보 통신 용어 31개를 순화한 '국어 순화 자료집 2000'을 냈고, 2001년에는 운동 경기 용어 15종목 1490개를 순화하여 '국어 순화 자료집 2001'을 냈다.
    - ※ 이상 민현식(2003:192~197) 참조
  - 국립국어원 우리말 다듬기 사이트 운영(www.malteo.net)(2004년 7월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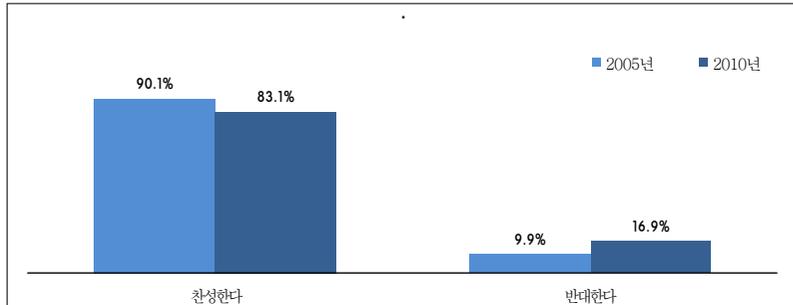
### □ 국어 순화에 대한 국민 의식(국립국어원 보고서, 2010년 국민의 언어 의식 조사)

#### ○ 국어 순화에 대한 인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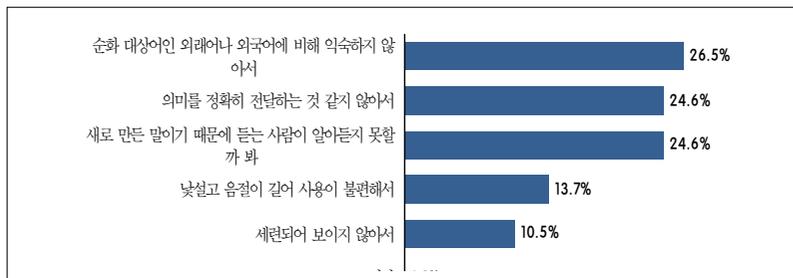
\* Top2: '대체로 그렇다' + '매우 그렇다'

○ 순화어 사용에 대한 찬반 의견



\* 순화어: 지나치게 어려운 말이나 외래어, 외국어를 알기 쉬운 우리말로 다듬은 말

○ 순화어 사용에 반대하는 이유



□ 논점에 대한 기존 견해들

○ 남기심(2003)

- 원래, 정통 언어학에서 보면 언어 순화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말은 자연스럽게 생성, 변화, 사멸하는 것으로 보고 거기에 아무런 가치를 부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말은 인위적으로 만들거나 바꿀 수 없다는 것입니다. 언어학에서는 모든 언어 현상이 그저 객관적인 관찰, 객관적인 고찰의 대상일 뿐입니다.

그러나 국민의 언어생활을 가꾸고 관리하는 정책의 틀에서는 언어 순화의 문제가 상당히 중요한 과제일 수 있습니다. 언어의 변화는 젊은 세대가 주도하는 것이기에 세대 간의 소외를 가져올 수 있고, 의사소통에 장애가 될 수 있으며, 언어의 변화는 필연적으로 언어 예절에도 변화를 가져오는 까닭에 이로 인한 사회 성원 간의 융

화를 해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말은 우리의 정신세계를 아름답고 살지게 할 수도 있고, 황폐하고 거칠게 할 수도 있다고 하는 말은 아주 근거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언어 정책적 관점, 사회·심리적 관점에서는 얼마든지 다른 주장이 있을 수 있는데 그것을 그냥 잘못으로 돌릴 수 없다는 것도 염두에 두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에게 언어와 사회, 언어와 심리, 언어와 정보, 언어와 문학, 언어 정책과 같은 응용 언어학적 연구와 이론적 축적, 실험적 축적이 거의 없습니다. 국어 순화는 국어학 전공자만이 할 수 있거나, 국어학 전공자만이 해야 하는 것이냐 하는 점도 짚어 봐야 할 것입니다.

외국어의 수입도 그렇습니다. 이것을 다 막을 수는 없습니다. 얼른 생각해서 외국어 또는 외래어의 남용은 당연히 막아야 할 것 같은데 막아야 할 필요는 어째서 느끼는 것이며, 그 이론적 근거는 무엇인지, 그리고 그것이 성공할 수 있는지도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10)

- '육교'를 '구름다리'로 고쳐 쓰자고 한다면 이것도 국수주의이겠습니까? '구름다리'에는 '육교'에 없는 정서적 가치가 있습니다. '소테나시'를 '민소매'라고 하자고 한 것이 최근의 일인데 국수주의적 사고를 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그렇게 쉽게 유행이 되었겠습니까?

국수주의란 비판은, 오래 전에 어렵다고 생각되는 한자어를 쉬운 우리말로 바꾸어 쓰기 운동을 시작할 때부터 있었던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면이 있습니다. '비행기'를 '날틀'이라고 하자는 제안이 대표적인 공격의 표적이었습니다. '공처가'를 '아내무섭장이', '컴퓨터'를 '셈틀'이라고 하자는 제안이 있었는데 이것도 국수주의 소리를 들을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국수주의의 한계는 과연 어디부터 시작해서 어디까지인지 그 정의를 한번쯤 시도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원래 국수주의니 쇼비니즘이니 하는 것은 약소민족의 입장에서는 자기 문화를 존중 계승하여, 자기를 발견하고 자기 정체성을 세우기 위한 수단이었으며 동시에 제국주의적 침략과 수탈에서 자기를 지키기 위한 방어적 태도였던 한편, 제국주의 세력의 입장에서는 타민족의 그러한 태도를 경멸하는 뜻으로 쓰던 말이기도 합니다. 국어 순화는 1933년의 '맞춤법 통일안' 제정, 그에 이은 표준말 사정 등과 맥을 같이하는 민족 문화 운동의 하나로 시작된 것입니다. 어려운 한자어를 쉬운 말로 순화하려 했던 것은 문화적 평등화, 민주 시민화 운동의 한 끝이요, 외래어 순화는 자기 것을 발견하고 보존하려는 노력의 한 가닥으로 시작된 것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이러한 태도가 아직도 유효하나 하는 등의 국수주의와 관련된 문제를 논의해야 할 것입니다.(10~11)

○ 한재영(2003)

- 용어 자체는 적절치 못하다고 하더라도, 국어 순화 작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그러

한 작업을 수행하는 까닭은 무엇일까? 국어 순화의 필요성과 목적은 과연 무엇인가? 국어 순화는 왜 하는가?

우리는 그에 대한 답을 언어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기능에서 찾을 수 있다. 언어가 가지고 있는 의사소통의 기능이 그것이다. 우리가 사용하는 국어는 어느 특정한 부류나 사회 집단 또는 일정한 연령대만의 국어가 아닌 것이다. '프라이드 치킨'을 달라고 하는 손자에게 '백숙'을 내주는 할머니가 있는 한 우리는 '프라이드 치킨' 대신에 '닭튀김'이라는 표현을 사용해야 하는 것이다. 혹은 외국과의 문화 접촉 단계에서 새로운 어휘는 계속 들어오게 되고, 새로운 문화와 문물의 발달에 따라 어휘란 계속 만들어지는 것이니만치 새로운 어휘에 대한 꾸준한 학습이 필요한 것이 아니냐고 반문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다. 하지만 새로운 어휘의 도입이 기존 언어 질서 위에서 이루어진다면, 즉 국어와 국어적인 사고를 바탕으로 하여 이루어진다면 특별한 학습 절차 없이도 새로운 어휘의 도입에 따른 이해와 습득은 큰 부담 없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다.(19)

#### ○ 고길철(2003)

- 국어는 항상 '오염'되어 있었다. 우리말 도로 찾기가 한창이던 해방 공간에서, 1950년대와 1960년대에, 그리고 국어 순화 운동이 번졌던 1970년대와 1980년대, '오염'되지 않은 날은 하루도 없었다. 지금도 마찬가지이다. 따라서 국어의 위기는 항상 존재해 왔다. 그 성격과 내용과 형태를 달리하면서 말이다. 어쩌면 '오염'이라고 정의하는 것 자체가 문제인지도 모른다. 바뀌 말해, '오염'이 아니라, 지식인들이건 대중이건 지배 계급이건 민중이건 각각의 사람이건, 개인이나 집단의 정서, 입장, 지위, 환경에 따라 언어를 사용하는 방식과 강도를 다르게 설정하는 하나의 삶의 전략에 오히려 가깝다. 거기에는 사용 논리와 의미 체계를 각각 다르게 설정하면서 언어적인 권력 관계를 형성한다. 예컨대 과거류에서 하나같이 외국말투성이인 것은 상품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것이다. 우리말이 거기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것은 바로 그러한 사용 논리와 관련하여 외국어와의 경합 관계에서 우위를 확보할 수 있는 장치들이 존재하느냐에 달려 있다.

그러나 그것은 언어상의 문제만이 아님은 이미 계속해서 말해 왔다. 사회적, 정치적, 경제적, 문화적, 미학적, 감성적, 이데올로기적 여러 층위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다. 대중은 그러한 흐름 속에서 언어의 사용을 욕망하고 전략화한다. 거기에는 특정한 정서와 감정 구조가 개입하며 진솔한 표현이 흐른다. 하지만 거기에는 반드시 '우리말'이어야 하는 이유가 존재하지 않는다. 언어란 이미 '우리말'이라는 경계를 넘어 언어 일반으로서 존재하기 때문이다. 오히려 문제인 것은 대중들의 언어적 사용 욕망과 전략을 방해하고, 배제하고, 억압하고, 멸시하고, 편협화하는 지배 집단의 지배 전략에 있다. 국어 순화론자들과 역대의 집권자들이 수행한 국어 순화 운동이 바로 그

지위에 있었다. 언어의 위기는 바로 그들이 만들어 온 것이다.(43)

- 아직도 문화관광부의 국어정책이나 국립국어연구원에서는 '국어 순화'를 언어 정책의 기본항목으로 설정한다. 그러나 앞서 언급한 것처럼 '국어 순화'라는 말은 더 이상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 대신 '언어 순화'라는 말로 '순화(?)'하여 사용하는 것이 좋겠다. 그렇다고 기존 국어 순화의 범주들을 다 인정한다는 의미는 아니다. 언어 순화(국어 순화) 정책은 언어를 협소하게 이해하려는 태도를 벗어나 더욱 풍부하게 할 수 있다는 조건에서, 획일화나 억압으로서가 아니라 차이와 다양성을 전제로 해서 제한적으로 수행하여야 할 것이다. 예컨대 '통찰'을 '살핌'으로 순화해서 사용하자고 한 바 있지만 그 화용론적 쓰임새에 따라 각각 다른 사용법과 의미를 가질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해야만 한다. 그렇지 않고 무조건 '통찰'을 '살핌'으로 써야 한다고 하는 것은 단지 우기는 것밖에 되지 않는다. 바른말이나 고운 말의 경우도 언어 사용자들의 언어적 윤리성에 맡겨야 한다. 언어 순화를 정책적으로 펼친다 해도 성공적이지 않은 것은 결국 언어 사용자들의 선택에 달려 있기 때문이다. 물론 외국말의 문제는 우리말로 순화(순화라기 보다는 번역/표현)해 내는 작업이 필요하다. 그리고 공공적 영역, 즉 행정이나 법률, 의료 등지의 영역에서의 우리말 표현, 쉬운 말로 쓰기 등은 언어적 소수자들이나 일반 국민의 공공성 접근 및 문화적 민주주의를 위해 언어 순화가 필요하다. 그래서 언어 순화 정책은 '제한적'으로 펼쳐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것도 이데올로기로서가 아니라 다중의 언어적 욕망 보장과 권리로서 기초되어야 한다. 다시 말해 언어 순화 정책의 방향을 바꾸어야 하고 그 대상 영역도 제한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문화관광부나 국립국어연구원과 같은 정부 혹은 정부 기구에서는 언어 순화 정책을 펴되 국민들을 상대로 직접 계몽하려 해서는 안 될 것이다.

#### ○ 민현식(2003)

- 우리는 지금까지의 논의와 사례를 통하여 통합적으로 다음과 같은 '국어 순화의 거시적 원칙'을 제시한다.

(1) 순화 방법의 문법성 원칙: 순화 대상어와 순화어의 문법성을 일치하도록 하라. 그동안의 순화어가 성공적으로 실천되지 못한 것은 순화 대상어와 순화어의 문법성을 일치시키려는 노력이 미흡한 것이 큰 원인이다. 따라서 순화어가 성공적으로 정착하려면 음운, 형태, 통사, 화용·의미론적 기준에서 상호 일치될 보이도록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야 하며 직역과 의역의 방법도 이런 방법 위에서 충분히 시도하여야 한다.

(2) 순화 절차의 신속성 원칙: 외국어 유입 시 순화어는 즉시 만들어 보급하여야. 그동안 국어 순화가 부진한 것은 외국어가 이미 한참 유행한 뒤에 사후약방문격으

로 순화어 작업을 하다 보니 아무 효과가 없었다는 점이다. -중략-

- (3) 순화 대상의 적절성 원칙: 무차별 순화가 아니라 선별 순화이어야 한다.  
이는 순화 대상 선택을 잘 하라는 것이다. 무조건 외국어나 외래어라고 다 순화가 가능하지 않다. 가령, 음식어는 순화가 근본적으로 불필요하다고 본다. '피자'는 '피자'이고, '햄버거'는 '햄버거'이며 '우동'은 '우동'일 뿐이지 '우동'과 '가락국수'가 반드시 같은 것이 아니다. 일본 '오뎅'도 한국의 '어묵'과 부분적으로 다르다. 따라서 지켜지지도 않을 음식계 순화어 작업은 불필요하다고 본다. 단지 좋은 우리말로 고칠 수 있는 것이 있으면 음식어라도 고쳐 쓰면 좋으나 무리할 필요는 없다는 것이다.  
주로 시급한 순화 대상 영역은 전문어보다 생활어(일상 대화어, 간판어, 유행어, 상품어 등)의 순화이다. 또한 생활어와 전문어(학문어)의 순화 접근 방법은 구별되어야 한다. -중략-

- (4) 순화 도구어의 융통성 원칙: 고유어 외에 한자어도 활용하여 순화한다.  
순화 대상어를 순화할 때 종래에는 흔히 고유어로만 선택하는 경향이 있었다. 그 리하여 기괴한 순화어가 양산되어 '비행기>날틀, 학교>배움집' 식의 조어도 나왔다. 한글학회의 '쉬운 말 사전'과 같은 경우 그 사전에 수록한 순화어들이 지나치게 고유어로만 억지 조어하여 비현실적 사례가 많고 기존 한자어를 배격하여 국어 순화가 오히려 국어 어휘 파괴로 비친다고 볼 수 있다는 비판이 있다. 즉 지나치게 한자어를 배격하여 고유어 중심의 조어를 하었는데 이는 오히려 국어 순화를 통해 지나친 언어 순정주의(純正主義)를 고집하는 것으로 비치기 때문이다. 가령, '러시아워'를 '몰림때'라 하고, '분수'를 '뿔물', '분사기, 분무기'를 '뿔개'라고 하는 것은 지나치게 고유어로만 조어한 결과인데 차라리 '러시아워'는 '출퇴근 시간'이라는 한자어로 하는 것이 이해에 쉽고, '분수, 분사기, 분무기'처럼 잘 알려진 기존 한자어는 굳이 바꿀 필요가 없는 것이다. 따라서 순화어를 고유어로만 고집할 필요는 없으며 한자어로도 번역하는 등 다양한 방법을 충분히 활용하여야 한다. -중략-
- (5) 순화 주체의 실천성 원칙: 각 참여 주체들의 적극적 자율 참여가 요구된다.  
순화의 각 주체들이 주체적 실천 능력을 가지고 순화 운동에 임하여야 한다. 그동안 순화 운동의 실패는 운동 주체가 다수 대중이어야 하는데 정부 관리와 국어학자들이 주체가 되어 순화 작업을 하다 보니 실패하게 되었다. 특히 전문어일수록 해당 분야의 전문가들이 순화의 주체로 나서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① 신속한 정책 결정(신속한 순화 심의 결정 단계)과 ② 장단기 집행 정책(행정·언론·기업·출판의 지속 홍보와 학교 교육에서의 지속적 교육 계몽 고착화)이 밀접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그동안 남북 순화어 정책의 효과나 순화어의 정착 정도에서 차이는 나는 이유는 남한은 외국어 남용에 대한 자율 규제 장치가 미흡한데, 북한은 언론

출판 과정에서 순화어의 적용을 철저히 검사하기 때문이다.

전문어들도 전문가들이 주체가 되어 번역하지 않고 그 분야 지식에는 문외한인 국어학자들이 주도적으로 순화 작업을 하다 보니 전문가들이 볼 때는 비현실적 용어가 많고 활용되지 못했던 것이 많다. 따라서 모든 분야의 외래어를 국어학자가 마음대로 순화할 수 없으므로, 전문어일수록 전문 분야의 학자들과 국어학자들이 대등한 주체가 되어 상호 순화안을 가지고 모여 불일치한 것들을 집중 토론으로 조정해 가면서 순화어로 확정해 가는 것이 좋다.

끝으로 이렇게 나온 순화어들을 신속히 확정하여 내놓는 순간 언론, 학교, 관청, 기업이 중심이 되어 순화, 홍보, 실천에 힘을 써서 1차적 실천 단위가 되어 신속히 확산시키도록 하여야 한다.(174~177)

- 우리가 언어의 용도를 의사소통에만 둔다면 외국어나 외래어를 쓰든, 비속어를 쓰든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의사소통에 충실하면 될 것이다. 그러나 우리가 외국어나 외래어의 남용을 경계하고 비속어의 사용을 자제하는 것은 우리의 자주 정신을 지키고 우리의 심성을 순화하기 위함이다. 따라서 토박이말로만 사유하고 토박이말로만 의사소통하는 것이 이상적이겠지만 외래어를 사용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 세계화 시대에 우리들의 문화 환경이므로 적절한 외국어나 외래어의 사용은 불가피하다. 이런 속에서 외래 요소를 적절한 수준으로 통제하고 조절하는 능력을 국어 사용자들이 가지기 위해서는 넘쳐 나는 외국어, 외래어 요소와 비속어들을 정화할 수 있도록 적절히 자율적 또는 타율적 언어 순화 의식이 필요하다. 그러므로 언어 순화의 동기는 다음과 같이 말할 수 있다.

첫째, 국어 공동체의 국민적 통합성, 정체성을 유지, 전승하기 위해 국어 순화 운동이 필요하다. 우리는 국어 순화 운동이나 의식을 통해 국어의 순수성을 유지하고 한국인 사이의 의사소통의 친밀도를 높여 국민적 통합성 증진에 기여하게 된다. 그래서 지난 시대의 정권들이 국민 의식 개혁 운동, 국민 통합 의식 고취가 필요할 때 이러한 문화 운동을 일으키는 경우가 많았다. 터키의 문자 개혁, 1960년대 북한의 말다듬기 운동, 1970년대 우리나라의 국어 순화 운동 등에서는 그러한 국민 통합적 정신 개혁 운동의 성격이 크다.

둘째, 국어 공동체 문화의 고유성을 유지하기 위함이다. 급격한 외국어의 유입 속에 모어를 방치하다 보면 국어는 급격히 외국어에 오염되고 문학 활동을 비롯한 문화 활동에서 문화적 위축이 발생하게 된다. 따라서 고유문화를 유지, 전승, 재창조하기 위해서는 모어를 사랑하고 순화하려는 의식과 적극적 운동이 정책적, 사회적, 교육적으로 필요하다.

셋째, 학문 지식의 자주성을 위해 필요하다. 국어 순화가 제대로 되지 않으면 학문

전문어에는 외국어가 범람하며, 학문적 사유가 외래 언어에 의존하여 학문적 종속이 심화되고 일반 문화의 외래 종속도 깊어지게 된다. 이는 결국 국력 약화로 이어져 국가 미래에도 부정적이다.

넷째, 국어 순화는 모어의 유지, 보존, 발전을 위한 동력의 역할을 한다. 국어 순화를 통해 외국어나 외래어를 국어의 새말로 번역하는 일은 국어의 조여력을 높이고 국어에 생명을 불어넣는 일이다. 따라서 이러한 국어 순화 활동은 국어 발전에 필수불가결하기도 하다. 역사 법칙인 '도전과 반응의 법칙'은 언어 발전에도 적용할 수 있으니 외국어의 도전에 함몰 당하지 않고 모어로 응전하여 외국어를 순화어로 수용, 대치하는 과정 속에 모어 문화가 전통에만 안주하지 않고 새롭게 발전할 수 있다.(181~182)

○ 이정복(2003)

- 1990년대 들어 정부의 적극적인 국어 순화 정책과 관련 단체의 순화 운동에 의하여 많은 낱말들이 순화 대상으로 지정되어 순화어로 바뀌었다. 그런 말 가운데서 어떤 것은 언어 대중에게 널리 퍼져 일상적으로 쓰이고 있는 반면 어떤 말은 여전히 잘 알려지지 않았거나 거의 사용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왜 이러한 현상이 생기는 것인가? 그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을 것이다. 새로운 순화어의 발음이 어려워질 수도 있고, 길이가 길어 불편하거나 형태 배열이 어색해서 그럴 수도 있다. 기존의 다른 낱말과 비슷하여 뜻의 혼동을 일으키는 문제 때문일 수도 있다.

그러나 이러한 원인 못지않게 화자들의 심리적 태도가 순화어의 성공적인 보급과 정착에서 성패를 좌우하는 핵심적 요인으로 작용함을 지적한다. <언론> 갈래 순화 자료집을 보면, '파우더룸(powder room)을 '화장방'(化粧房)으로 순화하면서 "이 화장실은 각각 냉난방 시설과 장애인 화장실은 물론, 여성 이용객들이 화장을 고치거나 갓난 아기 기저귀를 갈아줄 수 있는 '파우더룸'과 비데까지 들어 놓았다"의 예문을 보기로 들고 있는데, '화장방'은 같은 문장의 '화장실'과 의미가 중복되면서 불쾌함이 연상되어 사용하기가 꺼려질 수 있다. 또 '화장방'의 '화장'은 '火葬'이라는 뜻이 연상되기도 하여 제대로 뿌리내리기 어렵다는 생각이다.

새로 만든 순화어가 우리의 문화 특성이나 사회 구성원들의 바람직한 관계 면에서 적절한지의 문제도 중요하다. 우리말은 경어법이 가장 발달해 있음에도 경어법의 특성을 무시하고 순화어를 만들면 쓰는 데서 큰 불편함을 겪게 된다. '자국'(自國)을 '제 나라'로, '자국'(自局)을 '제 (우체)국'으로 해 놓았는데 '제'는 실제로 '자기'보다 낮춤 형식으로 쓰이고 있기 때문에 '자기 나라', '자기 우체국'이 더 좋다. 같은 구성을 보이는 '자택'(自宅)은 '자기 집, 집'으로 해 놓은 것과 일관성이 유지되지도 않았다. '제 나라'가 어색하지 않다고 느낀다면 '제 집'을 만들어 써 보면 그 문제점이 분명히 드러날

것이다. -중략-

순화해야 할 말을 선정하는 데서도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점들이 많다. 어떤 말을 순화해야 한다면 그것을 바꾸어야 할 이유가 무엇인지, 다른 표현으로 바꾸어 쓰으로써 우리의 언어생활에 어떤 효과가 있는지를 생각해 보아야 한다. 그런데 기존의 국어 순화 과정을 보면 왜 이 말을 순화하려고 했을까 의문이 드는 말들이 보인다. 예를 들면, 일본말인 '바카/빠가'(馬鹿)를 '바보'로 순화해 두었는데, 일본말에서 욕으로 쓰이며 우리말에서도 쓰임이 결코 다르지 않은데 이러한 욕설을 '바보'로 순화하는 것이 국어 생활에서 무슨 이익이나 효과가 있을지 궁금하다. 욕을 쓰지 않는 것이 바람직한 언어생활이라고 어릴 때부터 배우는 마당에 일본 욕설을 우리말로 바꾸어 두는 것은 국어 순화의 기본적인 방향에 크게 어긋난다. 순화 대상어를 선정할 때 깊이 따져 보지 않은 결과라 하겠다. -중략-

한편, 그동안의 국어 순화는 순화어를 만들어 내는 데만 온 힘을 집중하고 그것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보급하고 정착시킬 것인지, 또 순화어를 화자들이 얼마나 많이 쓰고 있는지, 순화어가 잘 정착되고 있는지를 검증하는 노력이 없었다. 효과적인 순화 작업을 위해서는 새로운 말을 만들어내는 일 못지않게 순화어를 충실히 보급하고 성공적인 정착 여부를 조사하는 과정도 중요하다. 새로 심은 나무가 제대로 뿌리를 내렸는지, 잘 자라고 있는지를 살펴보지 않고 무조건 많은 나무를 심으면 된다는 식의 순화 활동이 오랫동안 이어져 왔는데, 훌륭한 모목을 찾아 심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린 나무가 잘 자라나서 아름다운 꽃을 피우고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물과 거름을 적절하게 주어 정성껏 돌보는 일이 더 필요할 수 있음이다. (215~217)

- 복잡한 21세기를 살아가면서 앞으로는 우리말에 대한 맹목적인 사랑만으로 국어 순화 작업에 달려들어서는 안 된다. 태풍처럼 거세게 몰려드는 다양한 외래말과 외국말, 인터넷 통신의 등장과 함께 나타난 외국말·외래말 바탕의 새말들은 세대 간의 의사소통을 단절시킬 정도로 이제 우리말에 대한 현실적 위협이 되었다. 국어 순화 작업은 더 이상 우리말을 아름답게 꾸미고 가꾸는 '호사'가 아니라 국어 화자들 사이의 충분하고 원활한 교류와 이해, 그리고 우리말의 힘찬 '생존'을 위한 필수적인 작업임이 분명하다. 빠르게 전개되는 우리말 사용 환경의 큰 변화를 적극 반영하여 이제부터는 국어 순화의 실질적 범위를 일본말이나 어려운 한자말, 일부 서양 외래말 정도에서 더 나아가 인터넷 통신과 함께 등장한 외국말·외래말 바탕의 새말까지로 넓혀야 할 것이다. '우리말의 위기'라는 시대 상황에 적절히 대응하기 위하여 국어 순화의 필요성과 방향에 대한 새로운 배경 이론 연구도 선행되어야 하며, 그러한 튼튼한 이론적 토대에서 순화 작업이 더욱 힘을 얻게 될 것임을 밝힌다.(317~318)

## ○ 유재원(2005)

- 한 나라의 말은 그 나라의 민족성과 정신세계를 드러내는 문화의 핵심이고, 개개인이 쓰는 말은 그 사람의 인격이나 교양, 품위 따위의 사람 됨됨이를 나타낸다. 언어가 사고를 지배하기 때문이다. 인간은 한시도 언어에서 벗어날 수 없고 또 자신이 사용하는 언어의 영향을 입기 때문이다. 따라서 한 나라의 언어를 다듬는 것은 그 나라 사람들의 의사소통 도구를 갈고 닦는 것을 의미하는 동시에 그 언어를 써서 깊은 사고를 하고 풍부한 느낌을 가질 수 있도록 만들어 주고 나아가서 그 언어 사용자들의 세계관을 명료하게 하는 일이 된다. 국어 표준화와 순화가 필요한 까닭은 바로 여기에 있다.

한 나라 말을 다듬는 데에는 두 방향이 있다. 하나는 의사소통을 원활히 하기 위해 맞춤법과 표준어 제정, 표준 문법과 올바른 어법 등을 제정하는 표준화이고 또 다른 하나는 그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깊은 사고력과 고운 품성을 지닐 수 있도록 언어의 순수성을 지키는 일이다. 우리가 국어 순화라고 할 때 보통 이 두 번째 작업을 가리킨다.(9~10)

- 오늘날에는 정보·통신 기술의 눈부신 발전과 외국과의 교통과 통신의 발달에 힘입어 하루에도 헤아릴 수 없을 정도의 외국어가 쏟아져 들어오고 있다. 이런 엄청난 외국어의 홍수를 그대로 내버려 둔다면 언어의 혼란이 심해져 의사소통이 어려워질 위험성이 있다. 그렇다고 이런 외국어를 모두 심의하여 우리말로 바꾸는 일도 거의 불가능하다. 산업 시대 초창기처럼 한 사회를 중심과 주변으로 나누는 일이 의미가 없게 된 지금, 국어 순화의 방법도 달라져야 할 것이다. 우선 외국어 심의는 어느 정도 세월이 흐른 뒤 계속 사용되는 어휘에 한해서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국어를 순수하고 풍부하게 만들고 지키는 일이 일부 전문가나 정부 기관, 일부 계층의 일이 아니라 국민 모두의 일임을 널리 알리고 국민 각자가 일상생활에서부터 아름답고 품위 있는 한국어를 사용하는 분위기가 만들어져야 한다. 이런 노력을 통해 국어 순화는 단순히 외국어를 정리하거나 비속어를 다듬는 정도의 작업에 머물 것이 아니라 우리말로 철학이나 고급 학문을 할 수 있을 정도로 갈고 다듬는 수준으로까지 끌어올려야 할 것이다.(16~17)

## ○ 김하수(2005)

- 언어 순화와 관련된 가장 돋보이는 현상은 중세기를 마감하고 근대 사회에 들어오면서 특히 유럽을 필두로 일어난 민족 국가 형성 과정에서의 언어 순결화 운동이다. 중세기를 지배하던 라틴어를 대체하여 지역과 지방의 통속어에 머물렀던 넓은 의미의 방언을 민족어라는 거창한 지위로 올려 놓는 작업과 운동이 있었다. 이 주도 세력은 당시의 사회 변화를 주도했던 신흥 시민 계급이었고, 이들은 자신들이 쓰는 언어를 지배

언어로, 자신들이 보기에 품위 있다고 생각하는 문화 형태를 '교양'이라 불렀다.(22)

- 언어의 순결을 외치는 집단 가운데 가장 위협시되는 경우가 독일의 과시즘의 정책이다. 독일은 전통적으로 언어의 순결을 지키려는 운동이 매우 강한 편이었고, 이에 따라 언어에 대한 질은 낭만주의적 경향이 오래 갔다. 이러한 낭만주의는 나중에 국수주의와 결합을 하였고, 독일 국수주의는 유례없는 폭압 체제를 만들어 냈다. 이 경험은 두고두고 언어 전문가들에게 언어 순결화 운동이 얼마나 정치적으로 악용될 수 있는가 하는 경각심을 불어넣어 주기에 충분했다.(24)

- 결국 언어 순결화, 곧 언어 순화 운동은 자신들의 역사적 조건에 대해 각성한 시민 운동으로는 새로운 시대를 열 수 있는 역동성을 보여 줄 수 있었지만 국가 권력의 수단으로 이용될 때는 본의든 아니든 전진이 아닌 퇴행의 모습을 보여 줄 수밖에 없다는 교훈을 남겨 주었다. 그렇기에 한국의 국어 순화론자 가운데 1970년대 박정희 대통령의 한글 전용 조치를 높이 평가하려는 태도는 경계의 대상으로 삼아야 한다. 이들은 국어 순화가 사회의 민주화와 아무런 관계가 없다는 몰역사성을 보여 주기 때문이다.(24)

- 정당성을 지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국어 순화 운동은 늘상 미흡한 면을 드러내어 오기 일쑤였다. 그 까닭은 자신의 정당성을 내세우는 근거를 지나치게 감성적으로 제시하였기 때문에 항상 '현실론', '실용론'에 비해 호소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었다. 자연스레 깊은 언어 의식으로 무장한 일부 지식인들과 산발적으로 흩어진 동호인들 사이에서 '그들만의 리그'가 되어 버린 부분이 없지 않다. 결국 국어 순화 운동의 첫 번째 문제점은 객관적인 합목적성을 추려 내지 못하고 마음에만 호소하려는 낭만적, 더 나아가 유심론적 자세에 깃들여 있다고 본다.(24~25)

- 역사적으로 압축적 발전을 하고 있다는 한국 사회에서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이미 현대 후기의 현상이 나타나고 있어서 아직도 남아 있는 전근대적 요소와 모순되게 공존하는 면이 있다는 것이다. 곧 가족의 해체 현상과 가족주의, 전 인구의 도시 집중과 지방색, 양성 평등 의식과 남아 선호, 생태 운동과 산업화 욕구, 외국인 이주의 증가와 인종적 배타성 등 우리가 한 세기 동안 처리하지 못한 숙제들이 뒤엉켜 남아 있는 상태이다. 바로 이때가 새로운 가치에 대한 갈증이 무르익을 시점이다. 새로운 가치는 새로운 표현을 갈구한다. 유럽의 르네상스는 새로운 가치를 얻게 해 주었고, 그것을 표현할 수 있는 것은 중세 공동어인 라틴어가 아니라 자신들의 언어였다는 것이 그들의 자각이었다.

우리가 찾아가는 새로운 가치는 아마도 이국적인 냄새의 외래어가 아닌 그리고 딱딱하고 고색창연한 낡은 어휘가 아닌 새로운 우리의 언어에 의해서 발현될 가능성이 더 크다. 왜냐하면 사람이 사물을 보고 그 성격을 파악하여 무언가의 언어로 규정해 나가는 과정은 자신의 의식과 감성에 의해 언어화(verbalization)될 때 가장 명확한 인식에 다다를 수 있기 때문이다.(25~26)

- 지난날의 언어 문화는 주로 지식인, 엘리트들에 의해 주도되었다. 그러나 앞으로의 사회는 일찍이 경험해 보지 않았던 폭넓은 대중의 참여가 불가피해질 것이다. 그동안 광범위한 지식의 축적과 교육을 통한 대중화 작업이 선행되었다. 게다가 이제 다수가 참여하는 통신 매체가 마련되었다. 아직 변하지 않은 것은 낡은 제도뿐이다. 다수의 일반 대중이 요구하는 것을 사회적으로 관철시킬 수 있는 '제도의 보장'이 아직 미비한 것이다. 아직도 국어 순화는 일부 지식인의 전유물처럼 여겨진다. 일반 대중의 작품은 그 통속성, 즉흥성, 전복성 때문에 한글 파괴니 외계어니 비속어니 하는 모욕을 당하고 있을 뿐이다.

남은 일은 전문가 집단과 일반 대중이 만나는 통로를 개척하는 것이다. 대중의 착상을 예술적으로(?) 다듬어 그들에게 돌려주는 역할을 언어 전문가들이 해야 한다는 것이다. 물론 여기서 말하는 언어 전문가란 전형적인 국어학자를 가리키지 않는다. 넓은 의미에서 작가, 언론인, 법률가, 출판 관계자, 다매체 전문가 등 언어 덕에 괜찮은 직업을 가진 사람들을 말한다. 정치인이 끼어 있으면 금상첨화일 것이다.(26)

- 국어 순화와 관련된 논의 가운데 가장 쉽게 빠져 버리는 부분이 바로 '전략'에 관계된 문제이다. 그리고 또 한국어의 순화 문제에서 합목적성의 문제와 함께 가장 비판받을 부분이라 할 것이다.

합목적성의 결여는 자연스럽게 전략의 엉성함을 드러낸다. 문제의식이 감성적이니만큼 전략도 감성적인 선동이 중심이 된다. 이러한 방식으로는 한일 관계나 과거사 문제 혹은 친일 경력 등의 사회적 쟁점이 터졌을 때에는 유용한 면이 있지만 장기적이고 일관된 실천을 보장할 수는 없다.

순화 운동의 낭만성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기능성에 대한 재인식이 출발점이 되어야 한다. 정신적인 목적만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더 효율적인 의사소통을 위해서 순화가 필요하다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는 말이다.(27)

- 서양식 외래어의 경우, 대응하는 우리말 어휘가 모자란 탓보다는 외래어 자체가 지니고 있는 가치의 문제가 더 심각하다. '로드맵'이란 말은 '이정표'라는 말에 비해 그 어휘의 주도 세력이 가지고 있는 권위와 지배 상징이 더 큰 기능을 한다. 평범한 서민이 친구나 가족과 함께 여행을 떠나면 이정표가 필요하고, 권력 기구가 일반 대중의 삶을 규정하는 기획을 할 때에는 로드맵이 필요한 것이다. 만일 그 정책적인 기획이 보통 사람들의 일상성을 배경으로 하여 형성되었다면, 그렇게도 멀리 있는 낱말을 빌려 올 필요는 없었을 것이다. 그냥 이정표라고 하든지 아니면 '길차레'라고 새로운 말을 만들든지.....

권력의 문제만이 아니라 이익의 문제에서도 외래어는 예외 없이 위력을 발휘한다. 일반 소비자들은 '다방'보다는 '커피숍'에 갈 때에, '커피숍'보다는 '카페'에 갈 때에 더

많은 금전 지출을 각오한다. 목장에서 소의 '젖'을 짜서 공장에 보내면 용기에 담아 놓고 '우유'라는 이름으로 시장에 내놓는다. 그리고 이것을 서비스 업소에서 고객에게 '밀크'로 제공하면서 계속 부가 가치가 높아져 간다. 가난한 사람은 '단칸방'에 세 들고 부자는 '원룸'에서 사는 것을 언어를 통하여 내면화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곧 토착어에서 한자어로, 또 서구 외래어로 변신할 때마다 당당히 이윤을 더 비싸게 붙일 수 있는 위력이 생긴다는 것이다.

이 사례는 외래어가 상품의 사용 가치보다는 교환 가치를 높이는 데에 이용된다는 것을 보여 준다. 따라서 고객의 이익보다는 상품 제공자의 이익을 우선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이것을 언어의 주인인 일반 대중의 의식에 내면화시키면서 손실을 입히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언어의 순화는 당연히 고객의 이익, 소비자의 이익을 위해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길로 나아가는 것이 당연하지 않겠는가? 각성한 지식인이란 당연히 여기서도 왜 언어가 개혁의 대상이 되어야 하는가를 생각하게 될 것이다.

다시 언어 사용의 현장으로 눈을 돌리면, '명문 학교', '잡상인', '메이커리', '블록버스터' 등의 어휘 의미는 누구의 이익에 봉사하는 말인지 눈에 띈다. 그리고 그 가치에 서는 미래지향적으로 재구성되어야 할 부분이 보이게 된다. 언어의 순화는 바로 그 길목을 노려야 한다.(30~31)

- 언어 순화는 우선 그 목적과 의미를 분명히 해야 한다. 현재와 같이 외래적 요소를 무조건 박멸하지는 태도부터 꼭 문제가 있는 부분만 하자는 태도가 뒤섞여 있고, 토착어 살리기만이 아니라 정신을 순화하고 비속어까지 청산하자는 주장이 뒤엉킨 상태로는 구체적인 실천이 불가능하다.

진정 필요한 것은 '서로 합의된 이상(Idea)과 방향성(Orientation)'을 세우는 일이고, 거기서 운동의 합목적성을 찾아내야 한다. 합목적성은 시대와 지역에 따라 당연히 다르거니와 우리의 경우는 미진한 근대화의 완성, 불완전한 공동성의 성취, 그리고 미래를 향한 새로운 가치의 구현이라고 제안해 본다.(32)

- 무엇보다 이른바 '토착어'에 대한 지나친 감성적 쓸림 현상은 반성할 여지가 많다. 토착어는 형태적으로나 의미적으로 매우 유용하면서도 통속어 혹은 사투리로 다루어져 변두리에 밀려 있던 어휘를 재발견하고 어휘 유통의 순환 고리에 올려놓는 경우에 큰 가치를 지닌다. 그러나 형태나 의미의 유용성도, 무슨 용도인지도 확실치 않은 어휘를 가지고 어거지 조어를 남발한 것은 역으로 우리말의 발전에 해를 끼쳤다고 생각한다. 물론 어거지 조어는 언어 대중이 외면하여 자연히 소멸될 수밖에 없었지만 순화 운동의 흐름을 교란하고 일반 대중의 관심을 식어 버리게 한 과오는 지적해 두어야 한다.

토착어에 대한 쓸림은 역으로 한자어에 대한 심한 거부감을 동반한다. 여기에서도 당연히 순화 대상의 폭을 어느 정도로 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제기될 수밖에 없다.

사실상 우리말에 정착된 어휘도 발본색원하려 한다면 역시 언어 대중의 지지를 받기는 어려울 것이다.(32~33)

○ 송기형(2005)

- 그러나 영어의 지배는 심각한 문제점을 동반하고 있다. 영어 단어가 마구잡이로 사용되는 바람에 우리말의 많은 단어들이 사라져가고 있다. 예를 들어, 건강에 좋다는 포도주는 언제부터인가 '와인'이라고 불리고 있다. 어찌면 포도주란 단어는 곧 사전에만 남게 될지도 모른다. 라디오나 텔레비전 같은 단어처럼 꼭 필요한 외래어가 아닌 영어 단어들을 대한민국 사람들이 '모닝커피'를 마실 때부터 '투나잇쇼'를 볼 때까지 일상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영어의 지배는 많은 언어들을 오염하거나 훼손하고 있다.

훨씬 더 심각한 문제가 있다. 영어 단어에 의존하지 않으면 대화 자체가 불가능한 분야들이 점점 더 늘어나고 있는 것이다. 이런 현상은 기술과 과학 분야에서 더욱 두드러진다. 알다시피 과학과 기술의 발달은 새로운 개념 그리고 이것을 지칭하기 위한 새로운 용어의 원천이다. 예를 들어, 20세기 마지막 10년 동안 현기증 날 정도의 비약을 거듭한 정보 기술 분야에서는 하루가 멀다고 새로운 개념과 새로운 용어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그리고 그 용어들은 영어 일색이다. 이런 분야에서 새로운 기술을 도입하거나 만들어 내기 위해서는 영어 용어에 의존하지 않을 수 없다. 그렇지만 우리가 정보 기술과 같은 첨단 분야에서 영어 용어에만 의존하고 우리말 용어 개발을 포기한다면, 머지않아 우리말은 미개한 언어로 전락하고 말 것이다. 이처럼 오늘날 영어는 다른 모든 언어들의 존립 자체를 위협하고 있다.(76)

○ 이남호(2005)

- 지금까지의 국어 순화 운동은 말 그대로 불순한 것을 제거하고 순수하게 만들고자 노력하는 운동으로, 배제의 원리를 강조하는 것이었다. 즉 어떤 말들은 쓰지 말자는 것이 국어 순화의 내용이요 형식이었다. 그러나 배제의 원리에 입각한 국어 순화 운동은 국어를 풍요롭게 만들기보다는 국어를 빈약하게 만들 가능성이 높다. 특히 외래의 어휘나 어법에 대해서 지나친 거부감을 가지고 그것들을 무조건 배척하며 순수 우리말을 강조하는 태도는 국어 발전에 심각한 장애가 된다고 생각한다.(93)

- 배제의 원리에 입각하여 순수를 주장하는 태도는 문화의 차원에서도 언어의 차원에서도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한다. 동종 교배의 위험성과 취약성은 문화와 언어의 차원에서도 마찬가지다. 언어가 발전하기 위해서도 외국어와 접촉이 많아야 한다. 우리말의 어휘 수준은 고급 언어에 크게 못 미친다. 표현력도 마찬가지이다. 고급한 언어가 되기 위해서는 어휘의 수도 많이 늘어나야 하고 또 표현의 가능성과 세련성도 한층 높

여야 한다. 이를 위해 잘 사용되지 않고 있는 아름다운 우리말을 발굴해 내서 널리 사용케 하는 일도 해야겠지만, 그것만으로는 한계가 뻥하다. 그보다는 표현력을 높일 수 있는 외국 어휘들을 적극적으로 빌려 와 우리말이 되게 하고 또 우리말 안에서도 새로운 어휘들을 개발해 내어야 할 것이다. 어휘의 차원에서뿐만 아니라 표현법이나 어법의 차원에서도 외국의 좋은 방식들을 적절하게 수용해서 우리말에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특히 일본식 표현이나 일본식 한자어니 중국식 한자어니 해서 현재 우리가 익숙하게 사용하고 있는 어휘들을 몰아내자는 속 좁은 주장은 이제 그만 해야 한다.(97)

- 국어 풍요를 위한 국어 순화 운동은 크게 두 가지를 지향해야 할 것 같다. 첫째, 배제의 원리를 버리고 포용의 원리를 채택해야 한다. 될 수 있으면 많은 어휘와 표현법을 갖추기 위해서, 우리 것의 순수성에 매이지 말고 더 과감하게 개방적인 태도를 취하는 것이 필요하다. 국어의 표현력을 키우는 데 도움이 되는 것이라면 일본어건 중국어건 아랍어건 받아들이지 못할 이유가 없다. 심지어 이모티콘까지도 현재의 언어 규범에 복종하면서 국어 표현력을 확장하는 것이라면 용납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단어 차원에서 문장, 단락, 글의 차원으로 시야를 넓혀야 한다. 단어 차원에서 국어를 아름답게 꾸미려는 노력은 한계가 분명하다. 국어가 발전하려면 좋은 문장과 좋은 글이 많이 써야 한다. 독창적인 내용이 간명하고 아름답게 표현된 문장과 글이 크게 존경받고 지저분하게 쓰인 문장과 글에 대한 거부감이 확산될 때, 진정한 국어의 발전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훌륭하게 쓰인 글이라면 단어의 문제는 저절로 해결된다. 이런 점에서 우리 토박이 낱말들을 되살려 쓰는 일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문장과 글을 바르게 쓰는 일이다. 외래어와 외국어를 함부로 사용하는 일보다 어법에 맞지 않거나 너저분한 글을 쓰는 일이 훨씬 부끄러운 일이며, 좋은 글을 쓰는 것이 곧 국어 발전에 이바지하는 일이라는 인식을 널리 확산시키는 국어 순화 운동이 되어야 할 것이다.(100~101)

○ 고종석(2007)

- 언어민족주의가 모국어에서 외래 요소를 슈아내는 방식으로 발현하는 것은 역사적으로 드문 일이 아니다. 17세기 이래 독일에서 부침을 거듭한 언어순화운동이 대표적 예다. 1617년 루트비히 폰 안할트라는 독일인은 그리스-라틴어나 프랑스어 같은 '문화어'들에 깊이 감염된 독일어를 '순화'하기 위해 '결실의 모임'이라는 단체를 만들었다. '종려나무 교단'이라고도 불렀던 이 단체는 독일 여러 곳에 사무실을 두고 '애국적' 인사들을 모아 독일어의 독일화 운동에 박차를 가했다. 그 뒤 독일 전역에서 우후죽순처럼 독일어순화운동 단체들이 생겨났다. 이런 언어민족주의자들의 수백 년에 걸친 노력에 힘입어 적잖은 '순수' 독일어 단어들 태어났다.(51~52)

- 인위적 언어 순화운동은 대체로 실패한다. 20세기 들어 영어에 그러도 거세게 저항했던 프랑스에서도 마찬가지다. -중략- 민족주의는 이념이라기보다 자연스러운 감정상태이므로 언어순화운동은 어떤 언어공동체에서도 적잖은 지지자들을 만들어낼 수 있지만, 반면에 언어순화운동이 어느 정도 효과를 내려면 권력이 고도로 집중된 전체주의 사회를 전제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 또한 엄연하다. 북한에서 이 운동이 그나마 효과를 거둘 수 있었던 것은 그 사회체제의 경직성과 깊은 관련이 있을 것이다. 이 불길한 함축은 고귀한 민족애의 실천형식으로서 언어순화에 매력을 느끼는 선남선녀들이 특히 곱씹어보아야 할 생각거리다.(53)

- 이런 순화운동의 방식이 대체로 번역차용(외국어 표현의 구조를 그대로 둔 채 형태소를 일 대 일로 번역하는 것) 형식의 베끼기여서, 거기서 어떤 정신의 확장이 이뤄지지는 않는다는 점도 지적해야겠다. '자동차'와 '제육직썰', '사물'과 '일문', '총론'과 '모도풀이'는 똑같은 구조를 지닌 말이다. 다시 말해 앞말을 뒷말로 베껴낸다고 해서, 거기서 새로운 지적 지평이 열리는 것은 아니다. 말하자면, 이것은 매우 하찮은 지적 작업이다. 그러나 민족주의는 쉽게 억눌 수 없는 에너지다. 말하자면 결코 하찮은 것이 아니다. 그래서 이런 하찮은 지적 작업은 앞으로도 운동량을 쉬 잃지 않을 것이다.(55)

#### ○ 최경봉(2007)

- 우리의 경우에도 외래어 정화운동은 민족주의와 국가주의를 강화하는 데 이용되었다는 것을 부정할 수는 없다. 해방 이후 일제 잔재 청산의 일환으로 시작된 국어정화운동은 대중의 호응을 얻었고, 독립국가 건설이 목표이던 당시에는 사회구성원의 민족의식을 고양하는 데 기여했다. 여기에는 모국어를 상실할 뻔했던 경험이 크게 작용하였다. 외래어 특히 일본식 표현에 대한 정화가 국어정책과 교육의 가장 큰 목표가 된 것도 이 때문이다.

억눌려왔던 우리말의 독자적 발전을 모색하기 위한 이념적 기반이 필요했다는 점에서 이 당시 언어민족주의에 기반한 국어정화운동은 나름대로 긍정적인 역할을 했다. 그러나 이러한 경향이 지속되면서 국어정화운동은 의사소통의 불편함을 해소하는 차원이 아니라, 민족적 순수성과 자존심을 지켜야 한다는 사명감을 앞세워 진행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비이성적인 국어정책이 나타날 수밖에 없었다. 즉 언어에 민족과 국가의 의미를 과도하게 부여하고 보수적인 언어민족주의를 국어정책과 교육의 기본 이념으로 삼으면서, 국어의 효용성을 제고하는 문제를 등한시하는 경향을 띠게 된 것이다. -중략-

이러한 상황은 왜곡된 형태의 언어민족주의를 유행시켰으며, 이렇게 형성된 언어민족주의는 현재까지 국어순화운동의 주요 논리로 자리 잡고 있다. 그러나 민족주의적 관점에서 외래어 문제를 보게 되면 정치 논리로 외래어 문제에 접근하는 오류에 빠지기 쉽다. 이러한 접근은 언중에게 외면되는 순화어의 양산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이러한 경향은 남북한이 기본적으로 동일하였다고 봐야 할 것이다.(368~369)

#### ○ 고성환(2011)

- 국어 순화는 국어에서 잡스러운 것을 없애 순수성을 회복함을 가리키는 것이 일반적이다. 국어에서 잡스러운 것을 없애는 국어 순화는 어휘뿐만 아니라 발음, 문장, 담화, 맞춤법 등 국어의 전 영역에 걸치는 문제이다. 그러나 언어의 순화 문제가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것은 어휘 차원이고, 또한 국어의 경우에도 해방 이후에 국어 순화 작업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지면서 중심적인 대상이 된 것은 단어였기 때문에 국어 순화라 하면 으레 어휘 차원의 문제로 생각하는 것이 일반적이다.(6)

- 국어 순화는 우리나라 사람이면 누구나 그 필요성을 인정하는 문제였다. 이러한 국민적인 동의는 구체적인 순화 작업을 할 때 순화의 범위 등과 같은 세부적인 내용에서 이견이 있기는 했지만 지속적으로 국어 순화를 해 올 수 있었던 바탕이 되었다. 지금도 국어 순화의 당위성이나 필요성에 대해 부인하기는 쉽지 않다. 아직까지 일제 강점기를 경험한 세대가 많은데다가 해방 이후에 시작된 일제 잔재 언어의 청산에 전 국민이 적극적 지지를 보내 준 것을 경험한 사람들이 많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그렇지만 지금의 사정이 그리 녹록지는 않다. 근래의 서양식 외래어나 외국어를 순화해야 할 필요성을 절감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이들 외래어나 외국어의 순화 문제에 대해 별로 관심을 갖지 않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는 것이 더 정확한 표현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10~11)

- 언어 접촉으로 인한 언어 차용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언어 현상이고, 외국과의 교류가 빈번해진 현대 사회의 특성을 생각하면 외래어, 외국어 사용은 불가피한 점이 있다. 이들 외국어 중 일부는 우리말에 정착되어 외래어가 되는 것이 당연하기도 하다. 그러나 외국에서 들어오는 모든 단어를 외래어로 받아들일 수는 없다. 그렇기 때문에 쏟아져 들어오는 외국어를 순화하는 작업을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근래의 상황을 보면 순화 작업의 성과가 크다고 하기 어렵다. 그렇다고 하여 순화 작업을 멈출 수도 없고 또한 멈추어서도 안 될 문제이다. 순화 작업을 통해 순화어가 일반 국민들의 언어 감각에도 맞고 빠르게 만들어진다면 국민들의 언어 사용은 그만큼 용이해지는 것이 자명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끊임없이 쏟아져 들어오는 외국어들을 적시에 적절한 우리말로 순화하여 쓰는 것은 너무나 버거운 일이다. 또한 쏟아져 들어오는 외국어들 중 상당수는 유행어에 그치게 되기 때문에 그에 대응하는 순화어를 만들 필요가 없고, 외래어로 정착되기를 기다렸다가 순화어를 만들게 되면 일반 국민들에게 보급하는 것이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다. 일상적으로 사용하여 익숙해진 외래어 대신 생소한 순화어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언어 사용자가 순화어에 대해 상당한 관심을 가져야 하고 순화어를 사용하려는 의식적인 노력이 뒤따라야 하는데 이것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기 때

문이다. 또한 생소한 순화어를 사용하는 것은 당장의 의사소통에 불리하기도 하다.

순화어가 제대로 정착하지 못하는 것은 순화어에 대한 일반 국민들의 인식과도 상당한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순화어에 대한 일반 사람들의 인식은 비표준어나 어문 규범에 어긋난 표기에 대한 인식과는 상당히 다르다. 즉, 비표준어나 어문 규범에 벗어난 표기는 잘못된 것으로 인식하고 있지만, 순화어가 올바른 단어이고 순화 대상어는 올바르지 않은 단어라든가 쓰지 말아야 하는 단어라는 인식은 거의 없다.

더욱이 순화 대상어가 잘못된 말이고 순화어가 올바른 말이라 하기도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순화 대상어는 이미 일반 국민들 사이에서 상당한 세력을 가지고 쓰이고 있는 것이어서 오히려 생소한 순화어를 올바른 단어라고 하여 사용하기를 강제하는 것은 현실성이 떨어지기 때문이다.(11~12)

- 근래에 만들어진 많은 순화어 가운데 일상어로 자리 잡은 단어는 극히 일부분에 지나지 않지만 그동안의 순화 운동 과정에서, 특히 해방 이후 지속적인 순화 운동을 통해 일본어 투 단어들을 몰아내고 그 자리를 순화어로 대체한 것은 크나큰 성과가 아닐 수 없다. 또한 극히 제한적이기는 하지만 지금도 순화어가 자리를 잡아가는 것은 지속적인 순화 작업의 성과임에 틀림없다. 순화 작업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이러한 성과는 전혀 이루어질 수 없었을 것이다. 순화 작업은 그 실효성이 매우 작다고 하더라도 순화 과정 속에서 일반 국민들은 국어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된다. 우리가 사용하는 말 중에 순화 대상어가 있고 그러한 순화 대상어에 대한 순화어가 있다는 사실(순화 대상어에 대한 순화어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를 모른다 하더라도)을 일반 국민들이 안다는 것 자체가 국어에 대한 국민들의 의식을 달리하게 하는 방편이 된다. 근래에 쏟아져 들어오고 있는 서양 외국어에 대한 일반 국민들의 생각은 해방 후의 일본어 투 단어들에 대해 가졌던 생각과 큰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많은 국민들이 우리말을 살려 써야 한다는 명제의 당위성을 인정하는 것은 여러 경로를 통해 순화어에 대한 이야기를 가끔씩이라도 듣게 되기 때문이다. 이렇게 봤을 때 순화의 성과가 얼마나 있느냐 하는 것을 순화 작업의 지속 여부를 결정하는 기준으로 삼을 수는 없다. 우리나라에서 국어 순화 작업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당위성을 가진 언어 정책에 속하기 때문이다.(13)

## 【참고 문헌】

- 고길섭(2003), 국어 순화 정책 무엇이 문제인가?-국어 순화 정책의 역사적 문화적 비판, 『국어 순화 실천 방안 마련을 위한 학술 대회』(국립국어연구원).
- 고성환(2011), 국어 순화의 역사와 전망, 『새국어생활』 21-2.
- 고종석(2007), 『말들의 풍경-고종석의 한국어산책』, 개마고원.
- 김하수(2005), 국어 순화의 문제점과 극복의 길, 『새국어생활』 15-1.
- 김하수(2011), 국어 순화의 비판적 대안, 『새국어생활』 21-2.
- 남기심(2003), 국어 순화와 관련하여, 『국어 순화 실천 방안 마련을 위한 학술 대회』(국립국어연구원).
- 민현식(2003), 국어 순화의 국어학적 연구, 『국어 순화 정책 연구 보고서』(국립국어연구원).
- 송기형(2005), 프랑스의 자국어 순화-전문 용어 개발을 중심으로, 『새국어생활』 15-1.
- 유재원(2005), 국어 순화, 왜 그리고 어떻게 해야 하나?, 『새국어생활』 15-1.
- 이남호(2005), 국어 순화는 국어 풍요가 되어야 한다, 『새국어생활』 15-1.
- 이동석(2011), 국어 순화 결과 분석 및 방법론 제언, 『새국어생활』 21-2.
- 이정복(2003), 기존 순화어의 사회 언어학적 연구, 『국어 순화 정책 연구 보고서』(국립국어연구원).
- 최경봉(2007), 외래어 사용의 긍정적·부정적 측면과 그 수용 방안, 『어문연구』 35-1.
- 최용기(2003), 국어 순화 정책의 역사와 개관, 『국어 순화 정책 연구 보고서』(국립국어연구원).
- 한재영(2003), 국어 순화 왜 필요한가?-다시 생각해 보는 국어 순화, 『국어 순화 실천 방안 마련을 위한 학술 대회』(국립국어연구원).

부 록 2

조선일보 기사

